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석사학위논문

고구려의 요동확보를 통한 수상교통로의 활용과 성장

HANSUNG UNIVERSITY

2026년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사 학 과

한 국 사 전 공

최 상 근

HANSUNG
UNIVERSITY

석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윤성호

고구려의 요동확보를 통한 수상교통로의 활용과 성장

Utilization and Growth of Water Transportation Roads by Securing Liaodong in Goguryeo

HANSUNG UNIVERSITY

2026년 6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사 학 과

한 국 사 전 공

최 상 근

석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윤성호

고구려의 요동확보를 통한 수상교통로의 활용과 성장

Utilization and Growth of Water Transportation Roads by Securing Liaodong in Goguryeo

위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6년 6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사 학 과

한 국 사 전 공

최 상 근

최상근의 문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26년 6월 일

심사위원장 이 재 석 (인)

심 사 위 원 박 근 칠 (인)

심 사 위 원 윤 성 호 (인)

HANSUNG UNIVERSITY

국 문 초 록

고구려의 요동확보를 통한 수상교통로의 활용과 성장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사 학 과
한 국 사 전 공
최 상 근

본 연구는 고구려가 요동지역을 확보한 이후 구축한 지방통치체제와 산성 분포양상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요동의 하천과 해상을 연결하는 수상교통로의 활용이 고구려의 성장과 대외정책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요동 진출 과정과 산성의 기능, 육상교통로의 활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요동의 하천과 해상을 연계한 수상교통로에 관한 연구는 다소 부족하였다. 특히 요동의 하천 활용에 대해서는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구려의 요동 진출, 요동지역의 지배와 산성, 교통로의 구축을 연계하여 요동확보 이후 이용된 교통체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고구려의 요동 진출 과정과 광개토왕대 요동확보의 역사적 배경을 검토하였다. 이후 고구려는 중국세력과의 충돌을 방어하기 위해 산성을 축조하고 지방관을 파견하여 그 지역을 통치하였다. 산성은 교통로의 주요 길목에 축조되는 건축물로 교통의 요충지의 역할을 하였다. 특히 요동의 주요 산성이

하천유역과 연안 교통의 요충지에 축조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이러한 산성이 군사적 목적뿐만이 아닌 지방통치와 수상교통의 중심 거점으로 기능하였음을 밝혔다.

이를 통해 초하·애하·대양하·벽류하 등 요동의 주요 하천과 압록강 하구는 황해와 발해만 연안의 해상교통로와 연결되어있어 평양과 요동 중국을 연결하는 수상교통로를 활용하였음을 밝혔다.

특히 수상교통로는 중국 남조인 송(宋)과 외교의 창구로 활용되었다. 당시 육로를 통해 송에 가는 것은 북위를 통해 가는 방법으로 북위와 송의 관계에 따라 이동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요동을 확보하면서 요동 남부를 이용한 수상교통로를 기반으로 외교적 이동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이동을 통해 중국왕조와의 경쟁 속에서 자국의 이익을 가지는 외교전을 펼칠 수 있었다.

이상을 종합하면 고구려는 요동을 단순한 중국과의 국경 접경지역이 아니라 군사, 경제, 교통을 연결하는 공간으로 활용하였으며 수상교통로를 기반으로 물자와 인구 및 병력의 이동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결국, 요동의 확보와 수상교통로의 활용은 고구려 지방통치체제를 안정시키는 동시에 대외 활동의 기반을 마련하여 광개토왕 이후 고구려가 동북아시아의 강국으로 성장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고구려(高句麗), 요동(遼東), 지방통치(地方統治), 산성(山城), 교통로(交通路)

목 차

제 1 장 머 리 말 ····· 1

제 2 장 고구려 요동 진출과 확보 ····· 6

제 3 장 요동지역의 지방통치와 축성 양상 ····· 11

제 1 절 요동지역 지방통치의 구조와 운영 ····· 11

제 2 절 요동지역의 산성과 지방관의 존재 양태 ····· 16

제 4 장 요동지역 확보를 통한 이점과 교통로 다변화의 의미 ····· 30

제 5 장 맺 음 말 ····· 38

참 고 문 헌 ····· 41

ABSTRACT ····· 45

HANSUNG UNIVERSITY

표 목 차

[표 1] 요동반도 하천 일대 고구려성 현황표 ····· 19

그 림 목 차

[지도 1] 요동지역 산성 분포도 ····· 17
[지도 2] 오골성과 박작성 위치도 ····· 21
[지도 3] 건안성과 비사성 위치도 ····· 25
[지도 4] 요동남부 산성 위치도 ····· 28
[지도 5] 고구려 요동지역의 육상교통로 ····· 30
[지도 6] 고구려 수상교통로 ····· 34

HANSUNG UNIVERSITY

제 1 장 머 리 말

고구려는 집안 지역에서 발원하여 중국 중원왕조 및 유목국가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성장하였다. 고구려의 지형적 위치상 요동(遼東)과 밀접한 지역으로 요동을 중심으로 중국 중원왕조들과 각축을 벌이게 되었다. 즉 요동에서 중원왕조와의 충돌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고구려는 이러한 요동으로의 진출을 염원해 왔으며 본격적인 요동 진출은 미천왕 시기에 시작되었다.[1] 4세기 초 중원왕조를 통일한 서진(西晉)이 분열되면서 5호 16국 시대가 시작되었으며 고구려는 이러한 혼란기를 기회로 요동으로의 진출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이후 고국양왕 시기 요동 정벌을 재시도하여 요동과 현도(玄菟) 확보에 성공하였다.[2] 그러나 후연(後燕)의 반격으로 불과 5개월 만에 요동과 현도를 후연에게 내어주게 된다.[3] 이렇듯 고구려는 요동을 두고 중국세력과 패권을 다투었으나 광개토왕이 즉위하면서 고구려는 염원하던 요동지역 확보에 성공하였다.

고구려가 어느 시점 요동에 진출하였는지에 대한 견해는 학계에서 지속해서 논의되어왔다. 주로 「廣開土王碑」 영락 5년 조를 분석하여 고구려가 395년 요동확보에 성공하였다고 파악하였다.[4] 반면 당시 고구려는 요동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음을 지적하고 402년 고구려가 요하를 건너 후연의 숙군성을 공격한 사료를 통해 402년 이전 요동 정벌에 성공하였다고 이해한 견해가 있다.[5]

---

1) 『三國史記』 券17, 高句麗本紀6, 美川王 21年(320).

2) 『三國史記』 券18, 高句麗本紀6, 故國壤王 2年(385).

3) 『三國史記』 券18, 高句麗本紀6, 故國壤王 2年(385).

4) 김영하, 「高句麗의 巡狩制」, 『歷史學報』 106, 1985; 서영수, 「廣開土大王陵碑文의 征服記事 再檢討」, 『歷史學報』 119, 1988; 田中俊明, 徐吉洙역, 「高句麗의 北方進出과 廣開土王碑文」, 『고구려발해연구』, 1996; 篠原啓方, 「高句麗的 國際秩序認識의 成立과 展開 : 4-5世紀를 中心으로」, 고려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6; 李仁哲, 「고구려식 지명과 요동 주민의 계통 문제」, 『白山學報』 81, 2008; 공석구, 「廣開土王의 遼西지방 進出에 대한 고찰」, 『韓國古代史硏究』 67, 2012; 임기환, 「고구려의 요동진출과 영역」, 『고구려발해연구』 45, 2013.

5) 여호규, 「「광개토왕릉비」에 나타난 고구려의 대중인식(對中認識)과 대외정책」, 『역사와 현실』 55,

고구려가 언제 요동을 확보하였는지는 중요한 사안이나 극명한 것은 고구려가 요동을 차지하기 위해 활발한 정복 활동을 하였으며 요동지역이 고구려에 중요한 지형이었다는 점을 의미한다. 고구려는 이러한 요동에 지방관을 파견하여 요동을 지배하고자 하였다.

고구려의 지방통치에 관한 연구는 크게 4~5세기의 지방통치와 6세기 이후 지방통치로 나누어져 있다. 4~5세기의 지방통치는 태수(太守)라는 관직과 수사(守事)라는 지방관이 파견되었음이 확인된다. 이를 기반으로 수사와 태수의 상하 관계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수사와 태수가 병렬적인 관계로 본 견해와[6] 수사와 태수의 관계가 상하로 구분되어있는 것으로 본 견해가 있다.[7] 특히 당시 시대상을 전하는 「廣開土王碑」에서는 확보한 영토의 민(民)을 동원하여 왕릉의 수묘(守墓)를 위해 수묘제(守墓制)를 실시하였다. 비문에서 민이 차출된 지역인 곡(谷)과 성(城)을 명기하여 곡과 성이 당시 고구려의 지방통치 단위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지방통치 단위는 6세기까지 이어져 성은 고구려의 지방통치 단위로 기능하였으며 6세기 이후 고구려는 이전보다 정형화된 지방통치체제를 갖추게 된다. 수사와 태수의 용례가 사라지게 되었고 『翰苑』과 『舊唐書』, 『新唐書』를 통해 욕살(褥薩)-처려근지(處閭近支)-가라달(可邏達)-루초(婁肖)를 파견하였음이 확인되었다. 6세기 이후 지방통치는 이러한 지방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가라달이 어떤 성격을 가진 지방관으로 보는지에 따라 견해가 갈리게 된다.

크게 2단계로 보는 견해에서는 욕살과 처려근지를 병렬적인 지방관으로

2005; 노태돈, 「광개토왕대의 정복활동과 고구려 세력권의 구성」, 『韓國古代史硏究』 67, 2012; 이성제, 「4世紀 末 高句麗와 後燕의 關係 -396년 後燕의 廣開土王 冊封 問題를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68, 2012; 신정훈, 「高句麗 廣開土王代의 稗麗 征討와 後燕과의 冊封이 가진 의미」, 『중앙사론』 37, 2013.

6) 임기환, 「高句麗 執權體制 成立過程의 硏究」, 경희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5; 여호규, 「3세기 후반~4세기 전반 고구려의 교통로와 지방통치조직 -南道와 北道를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91, 1995; 盧泰敦, 「5~7세기 고구려의 지방제도」, 『韓國古代史論叢』 8, 1996; 금경숙, 「4~5세기 고구려의 지방통치에 관한 시론적 고찰」, 『한국사학보』 1, 1996.

7) 김미경, 「高句麗의 樂浪·帶方地域 進出과 그 支配形態」, 『學林』 17, 1996; 金賢淑, 「高句麗 中·後期 中央集權的 地方統治體制의 發展過程」, 『韓國古代史硏究』 11, 1997; 주보돈, 「삼국시대 지방통치체제의 정착과정」, 『강좌 한국고대사』 2, 2003; 최희수, 「5~6세기 高句麗 地方統治의 운영」, 『역사논총』 10, 2012.

설정하였고 욕살과 처려근지 아래에 각각 가라달이 파견되었다고 보았다.[8] 루초는 이들의 하위 지방관으로 소성(小城)과 촌(村)을 관장하였다고 파악하였다.

3단계의 견해에서는 가라달과 루초를 동급의 지방관으로 파악하였다.[9] 가라달과 루초는 특수한 지방관으로 가라달은 전략적 지역을 담당하여 욕살-처려근지-루초, 욕살-처려근지-가라달 두 개의 지방 편제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았다.

4단계의 견해에는 가라달이 루초보다 상위의 지방관으로 파악하여 고구려의 지방통치는 욕살-처려근지-가라달-루초로 구성되어있다고 파악하였다.[10]

고구려 지방통치에 관한 연구는 어떤 시각으로 보는지에 따라 그 단위와 편제가 달라지기는 하나 성에 지방관이 배치되었음에는 이견이 없다. 요동지역에는 약 121기의 산성이 확인되며[11] 이러한 성에는 각각 지방관이 파견되어 군사적 거점으로 활용되었다.

지방관이 파견된 성은 그 자체의 성격에는 방어적 성격이 포함되어있으나 적의 공격을 막아내면서 주요 교통로를 통제할 수 있는 지점에 축조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교통로와 지방통치의 관계에 주목하여 요동지역 고구려 성의 분포양상을 통해 고구려의 교통로를 파악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먼저 연(燕)과의 전쟁로와 3세기 후반~4세기 전반 지방통치조직의 정비과정을 분석하였고 정복지역에 대한 지방통치 조직은 교통로를 중심으로 정비되었다고 파악하여 북도(北道)와 남도(南道)를 파악한 연구가 있다.[12] 또한, 요동지역의 고구려 성의 특징과 분포양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요동 내륙의 교통로를 파악한 연구가 있다.[13]

---

8) 노태돈,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1999, 242-257쪽.

9) 武田幸男, 「朝鮮三国の国家形成」, 『朝鮮史研究會論文集』 17, 1980; 여호규, 앞의 논문, 1995, 32-33쪽; 임기환, 앞의 논문, 1995, 154쪽; 김현숙, 『고구려의 영역지배방식 연구』, 모시는 사람들, 2005, 348-353쪽.

10) 盧重國, 「高句麗律令에 關한 一試論」, 『東方學志』 21, 1979, 146-147쪽.

11) 이경미, 「태자하-요동반도 일대 고구려 성의 분포양상과 지방통치」, 『역사문화연구』 61, 2017, 78쪽.

12) 여호규, 앞의 논문, 1995.

13) 김주형, 「고구려 후기 요동지역 고구려성의 위계와 방어체계」, 고려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석사학위

최근에는 고구려가 요동지역을 확보한 이후 접촉할 수 있는 대상이 많아짐에 따라 요동을 연결망의 허브(Hub)로 파악하여 고구려의 대외 관계를 파악한 연구도 있다.[14]

이러한 연구를 통해 요동지역 내륙의 교통로를 파악하고 더 나아가 여타 다른 세력과 접촉할 수 있는 교통로를 확보하였다는 사실을 파악하였다. 그러나 요동 내륙의 하천을 통한 수상교통로에 관한 연구는 다소 미진하였다. 요동지역의 성은 대체로 하천 지역 혹은 하천과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축성되었으며 이러한 성은 당대 교통로를 통제할 수 있는 지점이었다.[15] 이러한 수로는 해상교통로와 연결되어있었을 것이며 고구려는 이러한 이점을 활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선행 연구는 교통로 파악에는 도움이 되었으나 교통로 활용을 통해 고구려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하는 것은 다소 미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구려가 요동지역을 확보한 이후 구축한 성과 지방통치체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요동의 하천과 해상을 연결하는 해상교통로를 함께 파악하여 고구려의 성장에 어떠한 이점과 영향을 가져왔는지 파악해보고자 한다. 우선 2장에서는 교통로확보를 위해 요동을 두고 후연과 대치한 과정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고구려가 요동을 활용하게 되는 배경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3장에서는 요동 내륙의 하천 인근의 축성과 그 지역의 지방관 파견양상을 보고자 한다. 요동 내륙에는 크고 작은 하천이 요동만과 황해로 흘러 들어간다. 고구려는 효과적으로 적을 막아낼 수 있는 하천이라는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그 지역에 축성을 단행하였다. 하천 근처 산성과 지방관을 함께 파악함으로써 그 지역이 교통로 상의 중요한 거점이었음을 파악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요동지역의 확보에 대한 이점과 더 나아가 수상교통로의 활용이 고구려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

논문, 2022.

14) 백다해, 「4~6세기 高句麗 국제관계의 전개와 遼東」,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23.

15) 양시은, 『高句麗 城 硏究』, 진인진, 2016, 151쪽.

구를 통해 요동확보를 통한 이점과 고구려가 5세기 전성기를 맞이하는 배경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HANSUNG UNIVERSITY

제 2 장 고구려 요동 진출과 확보

4세기 고구려는 요동을 확보하기 위해 요동 진출 정책을 추진하였다. 미천왕 21년(320) 요동을 공격하였으나 전연(前燕)의 모용인(慕容仁)이 고구려의 공격을 막아 내었다.[16] 이후 고국원왕 시기에는 요동 진출로인 신성(新城)을 축조하였다는 기사를 통해 요동으로 진입하는 교통로까지 진출에 성공하였음을 알 수 있다.[17]

고구려의 공세에 전연은 고국원왕 9년(339)과[18] 12년(342)에[19] 고구려를 침공하여 압박하였다. 339년의 침공에서는 고구려의 화친 요청으로 물러났으나 342년의 침공에서는 미천왕의 묘가 도굴당하는 등 큰 피해를 입어 요동으로 진출하고자 한 고구려의 염원은 다음으로 미루어야 했다.

이후 고구려가 요동으로 재진출을 시도한 것은 고국양왕 시기이다. 고국양왕 시기에는 전연이 멸망하고 후연(後燕)이 등장하여 새로운 상대를 맞이하였다.

고국양왕 2년(385) 요동을 공격하여 현도군 점령에 성공하였다.[20] 그러나 5개월 뒤 후연의 반격으로 요동을 다시 내어주게 되었다.[21] 이때 후연은 평주자사 대방왕 모용좌(平州刺史 帶方王 慕容佐)를 평곽(平郭)으로 옮겨 진수하게 하였는데[22] 이는 평곽을 대고구려 전선의 전진기지로 삼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23] 385년의 고구려의 요동 침공 이후 요동에서의 군사적 충돌은 확인되지 않으나 「광개토왕비」에서 요동 침공과 관련된 사료가 나타난다.

---

16) 『三國史記』 卷17, 高句麗本紀5, 美川王 21年(320).

17) 『三國史記』 券18, 高句麗本紀6, 故國原王 5年(335), 신성(新城)은 랴오닝성(遼寧省) 푸순시(撫順市) 훈허(渾河) 북쪽의 고이산성(高爾山城)으로 비정된다(노태돈, 앞의 책, 1999, 233쪽).

18) 『三國史記』 券18, 高句麗本紀6, 故國原王 9年(339).

19) 『三國史記』 券18, 高句麗本紀6, 故國原王 12年(342).

20) 『三國史記』 券18, 高句麗本紀6, 故國壤王 2年(385).

21) 『三國史記』 券18, 高句麗本紀6, 故國壤王 2年(385).

22) 『資治通鑑』 卷106, 晉紀28, 孝武帝 太元 10年.

23) 이성제, 앞의 논문, 2012, 57쪽.

A. 영락(永樂) 5년(395) 을미에 왕은 패려(稗麗)가 ▨▨인에 … 아니하므로, 몸소 (군사를) 이끌고 가서 토벌하였다. (왕의 군대가) 부산(富山)·▨산(▨山)을 지나 염수(鹽水)에 이르렀다. 그 3개 부락 6~700 영(營)을 격파하니 (노획한) 소·말·양 떼의 수가 매우 많았다. 이에 (왕이) 어가를 돌렸다. 양평도(襄平道)를 지나 동쪽으로 후성(侯城)·역성(力城)·북풍(北豐)·오비해(五備海)에 와서 영토와 경계를 둘러 살피고 전렵(田獵)을 한 후에 돌아왔다.[24]

위 사료 A는 광개토왕이 패려를[25] 정벌하고 염수까지 진출하였으며 환궁하는 과정에서 양평도를 지나 후성·역성·북풍·오비해에 와서 영토와 경계를 살피고 전렵(田獵)을 한 후 환궁하였다.

해당 사료를 볼 때 광개토왕은 요동지역의 여러 지역을 살피고 경계를 확인함으로써 요동이 고구려의 영토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당시 중요한 거점이었던 평곽이 「廣開土王碑」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는 고구려가 요동 전체를 점령하지는 못하였다는 의미이며 요동지역 일부를 후연과 나누어 점유하였다고 볼 수 있다.[26] 그렇다면 광개토왕이 요동지역 일대를 둘러 살필 수 있었던 배경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B. 10월 신미일 위(魏)의 군사가 새벽부터 밤까지 두 배로 빨리 행군하여 을유일(9일)의 해질 무렵에는 참합피(參合陂) 서쪽에 도착하였다. (중략) 병술일(10일) 탁발규가 병사를 풀어놓아 그들을 공격하니 연의 병사들이 달아나서 물로 들어갔는데 사람과 말이 서로 밟고 오르고 하여 눌리거나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1만 명을 헤아리게 되었다. (중략) 연의 병사 4~5만 명이 일시에 무기를 놓고 손을 거두고서 나아가 잡히니 그 나머지 살아 도망친 사람은 불과 수천 명이고 태자 모용보(慕容寶) 등은 모두 홀로 말을 타고 달아나서 겨우 죽음

24) 「廣開土王碑」.

25) 패려는 거란 8부의 하나인 필혈부로 추정된다(박시형, 『광개토왕릉비』, 사회과학원 출판사, 1996).

26) 이성제, 앞의 논문, 2012, 45-47쪽.

을 모면하였다.[27]

위 사료는 후연과 북위(北魏)의 참합피(參合陂) 전투를 전하는 사료이다. 사료에서 보이듯 후연은 북위에게 크게 패하였다. 사상자는 4~5만여 명이며 수많은 군 지휘자들이 사로잡혔다. 후연은 5만의 병력을 동원하여 북위에 대항하였다. 이에 반해 고구려와 국경지대인 요동지역을 수비하고 있던 후연의 병사는 비교적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28] 따라서 광개토왕은 요동을 완전히 점유하지 못하였음에도 요동지역을 살필 수 있던 것이다.

결국, 당시 요동은 고구려의 영토가 아니었다. 그러므로 고구려가 요동의 전 지역을 확보하였다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다음의 사료를 보자.

C. 모용보가 즉위해서 고구려왕 안(安)을 평주목(平州牧)으로 삼고 요동·대방이국왕(遼東·帶方二國王)에 책봉하였다. 안이 처음으로 장사·사마·참군(長史·司馬·參軍)의 관직을 두었다. 그 뒤에 요동군을 약유(略有)하였다.[29]

후연은 광개토왕을 평주목(平州牧)으로 삼고 요동·대방이국왕(遼東·帶方二國王)에 책봉하였다. 평주목은 평주자사로 볼 수 있으며 이는 평주를[30] 관할하는 자사로 해석할 수 있다.[31]

광개토왕의 책봉은 396년 혹은 397년 책봉된 것으로 보고 있다. 396년은 참합피 전투에서 패배한 후연이 396년 4월 모용보의 즉위와 다음 달 5월 범양왕 모용덕(範陽王 慕容德), 요서왕 모용농(遼西王 慕容農)에게 새로운 관

27) 『資治通鑑』 卷108, 晉紀30, 孝武帝 太元 20年.

28) 신정훈, 앞의 논문, 2013, 16쪽.

29) 『梁書』 卷54, 列傳, 高句麗傳, 『北史』 卷94, 列傳, 第82, 高麗, "句驪王安爲平州牧, 封遼東·帶方二國王. 安始置長史·司馬·參軍官, 後略有遼東郡."

30) 평주는 위나라(魏)대 동이교위(東夷校尉)를 양평(襄平)에 설치해 요동(遼東), 창려(昌黎), 현도(玄菟), 대방(帶方), 낙랑(樂浪), 5개 군을 평주(平州)라 했는데, 나중에 다시 유주(幽州)와 합쳤다(『晉書』 卷14, 第4, 地理志 上).

31) 평주목은 자사와 같은 지방관인데 후연에서는 양자를 혼용한 사례가 다수 발견된다(신정훈, 앞의 논문, 2013, 19쪽).

직을 제수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32] 397년 견해에서는 모용린(慕容麟)의 배신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을 근거로 들었다.[33] 그러나 후연은 반란과 북위의 공격으로 중산(中山)에서 용성(龍城)으로 천도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 시기 광개토왕에게 책봉을 내리기에는 어려웠을 것이다.[34] 즉 광개토왕의 책봉은 모용보의 즉위와 관직 제수와 함께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후연은 당시 북위와의 전쟁에서의 패배와 반란으로 정세가 매우 혼란스러웠다. 여기에 광개토왕이 요동을 침공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후연은 두 개의 전선(戰線)을 상대해야 하는 부담감을 안게 되었다. 따라서 후연은 한 개의 전선에 안정을 원하였을 것이며 고구려와의 국경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 광개토왕에게 책봉을 내려 위기를 벗어나고자 하였다.[35]

또한, 사료의 마지막 구절을 살펴보면 고구려는 그 뒤에 요동을 확보하는 것에 성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즉 고구려가 요동을 확보한 시점은 이 이후의 시기에서 찾아야 한다.

400년 3월 양평의 현령인 단등(段登)이 모반을 일으켜 살해당하였다.[36] 양평은 사료 A에서 양평도로 기술되어 나타난다. 이는 400년 3월까지 고구려가 요동을 석권하지 못하였으며 요동이 아직 후연 지방관 영향 아래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단등의 모반사건으로 요동이 혼란에 빠졌음을 가늠할 수 있다.[37] 따라서 광개토왕은 이 사건을 기점으로 요동지역을 공격하였다.

D. 11년(402) 왕이 군대를 보내 숙군성(宿軍城)을 공격하니, 연(燕)의 평주자사(平州刺史) 모용귀(慕容歸)가 성을 버리고 달아났다.[38]

---

32) 井上直樹, 「廣開土王의 對外關係와 永樂 5年의 對稗麗戰」, 『韓國古代史研究』 67, 2012, 205-207쪽; 신정훈, 앞의 논문, 2013, 18쪽.

33) 임기환, 앞의 논문, 2013, 82쪽.

34) 이주영, 앞의 논문, 2018, 35쪽.

35) 신정훈, 앞의 논문, 2013, 21쪽.

36) 『資治通鑑』 卷111, 晉紀33, 隆安 4年.

37) 여호규, 앞의 논문, 2005, 36쪽.

38) 『三國史記』 卷18, 高句麗本紀6, 廣開土王 11年(402).

위 사료는 고구려가 후연의 숙군성을 공격하여 평주자사(平州刺史) 모용귀(慕容歸)가 성을 버리고 달아난 사료이다. 숙군(宿軍)은 당시 후연의 수도인 용성(龍城) 지금의 중국 랴오닝성(遼寧省) 동쪽의 북진(北鎭)으로 비정되는데[39] 요하 서쪽에 해당한다. 또한, 평주자사의 치소가 본래 평곽이었으나 해당 사료에서는 평주자사의 치소(治所)가 숙군으로 이동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고구려군이 요하를 건너 요서 지역까지 진출을 감행하였다는 것은 402년 이전 고구려는 요동 전 지역을 완전히 영역화하는 것에 성공하였음을 의미한다. 고구려는 405년 후연의 요동성 침공까지 막아내면서[40] 5세기 초반 요동지역을 고구려의 영역으로 공고히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고구려는 4세기부터 요동 진출에 대한 염원을 이루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러한 노력은 광개토왕 시기 그 염원을 완수하였다.

그러나 영토가 확대되었음은 군사적 충돌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 늘어났으며 영토를 빼앗긴 국가가 보복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요동지역은 중국세력과 맞닿아 있으며 405년 후연의 침공 사례로 보았을 때 언제든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었다.

고구려는 요동 일대를 확보하였으나 이 지역을 지배하고 안정화하는 단계를 거쳤을 것이다. 이러한 지배와 안정을 위해 고구려는 요동 곳곳에 축성을 감행하고 지방관을 파견하여 지배를 공고히 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이어지는 3장에서 파악해보고자 한다.

---

39) 孙進己·王绵厚,『东北历史地理2』, 黑龙江人民出版社, 1989.

40)『三國史記』卷18, 高句麗本紀6, 廣開土王 14年(405).

제 3 장 요동지역의 지방통치와 축성 양상

제 1 절 요동지역 지방통치의 구조와 운영

고구려는 3세기 후반 나부체제(那部體制)가 해체되고 중앙집권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중앙 정부는 각 지역 요충지에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이러한 지방관은 왕을 대신하여 그 지역에 대한 지배 및 관리하는 관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정치·경제·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부터 파견되었다.[41]

고구려는 광개토왕 시기 영토확장 사업을 통해 방대한 영토를 확보하게 되었다. 요동의 확보는 백제정벌을 통해 확보한 영역과는 전혀 다른 의미의 공간이었다. 즉 요동의 국경은 백제보다 더 위협적인 중국세력과 맞닿아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었다. 고구려는 이러한 점을 인식하였을 것이며 요동지역도 각 성에 지방관을 파견하여 요동 지배를 이어 나갔을 것이다.

고구려가 요동을 확보한 5세기 지방관의 파견은 「忠州 高句麗碑」의 수사라는 용례를 통해 그 일부를 파악할 수 있다. 「忠州 高句麗碑」에 등장하는 고모루성수사(古牟婁城守事)는[42] 언제 활동한 인물인지 알 수 없으나 5세기 중반으로 파악하고 있다.[43]

고모루성이라는 용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구려는 성(城)을 단위로 하여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정치·경제·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지방관이 파견되는 만큼 수사가 파견될 가능성이 있는 곳은 요동, 두만강, 압록강, 대동강을 들 수 있다.[44] 고구려는 넓어진 영토를 지배하기 위해 지방통치를 정비하였을 것이며 지방통치 단위는 성을 중심으로 편제되었다. 후기 고구려 지방관 파견

41) 金賢淑, 앞의 논문, 1997, 13쪽.

42) 「忠州 高句麗碑」.

43) 이에 비문의 내용과 『三國史記』의 내용을 비교하여 450년 고구려 장수 변장이 실직에서 살해되기 이전인 449년으로 보는 견해가 대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任昌淳, 「中原高句麗碑 小考」, 『史學志』 13, 1979, 57쪽; 金貞培 「中原高句麗碑의 몇 가지 問題點」, 『史學志』 13, 1979, 91쪽; 장창은, 「중원고구려비의 연구 동향과 주요쟁점」, 『역사학보』 189, 2006, 313쪽).

44) 盧泰敦, 「渤海建國의 背景」, 『大丘史學』 19, 1982, 2-11쪽.

양상을 보여주는 사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

E-1. 그 여러 대성(大城)에는 욕살(褥薩)을 두었는데 도독(都督)에 비견된다. 여러 성(城)에는 처려구(處閭區)를 두었는데 자사(刺史)에 해당한다. 이를 일러 도사(道使)라고 하기도 한다. 도사가 있는 곳을 비(備)라 말한다. 여러 소성(小城)에는 가라달(可邏撻)을 두었는데 장사(長史)와 같다. 또 성에는 루초(婁肖)를 두었는데 현령(縣令)과 같다.[45]

E-2. 지방에는 60여 성(城)에 주현(州·縣)을 두었다. 큰 성(大城)에는 욕살(傉薩) 한 명을 두는데 도독(都督)과 비슷하다. [다른] 여러 성(城)에는 도사(道使)를 두니, 자사(刺史)와 비슷하다. 그 밑에 각각 요좌(僚佐)가 있어 일을 분담하여 관장한다.[46]

E-3. 60개의 주·현(州·縣)이 있으며, 큰 성(城)에는 욕살(傉薩) 한 명을 두는데, 도독(都督)과 비슷하다. 나머지의 성(城)에는 처려근지(處閭近支)를 두는데, 도사(道使)라고도 하며, 자사(刺史)와 비슷하다. 그리고 보좌하는 속요(屬僚)를 두어 일을 분담시킨다.[47]

위의 E사료 군은 고구려 후기 지방통치체제에 대한 기록이다. 사료 E-2, E-3은 『舊唐書』와 『新唐書』로 유사한 부분이 존재하며 E-1인 『翰苑』의 기록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사료에 따르면 대성(大城)에 도독(都督)에 비견되는 욕살(褥薩)을 파견하였다. 도독은 해당 지역의 자사이자 도독부의 군사를 통괄하던 관직이었다. 따라서 욕살은 대성의 행정장관임과 동시에 해당 지역의 군사를 지휘하는 지휘권이 있었을 것이다.

처려근지는 자사에 비견되며 성(城)에 파견되었고 그 이칭은 도사(道使)라

45) 『翰苑』 蕃夷部, 高麗.

46) 『舊唐書』 卷199, 列傳 第149 上, 東夷 高麗.

47) 『新唐書』 卷220, 列傳 第145, 東夷 高麗.

고 하였다. 도사는 교통로의 요충지에 파견된 지방관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48] 즉 처려근지는 교통로를 통제할 수 있는 지역에 파견되었고 그 이칭과 같이 주요 교통로를 관장하고 통제하던 지방관으로 이해된다. 그 외 소성(小城)에는 장사(長史)와 같은 가라달(可邏達)을 두었으며 성(城)에는 루초(婁肖)를 두어 지방을 통치하였다고 볼 수 있다.

사료에서는 고구려의 지방통치체제가 욕살-처려근지-가라달-루초의 4단계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를 근거로 2단계,[49] 3단계,[50] 4단계의[51] 견해가 제시되었다.

이는 크게 가라달을 어떤 성격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사료에서 가라달은 장사[52]에 비견하였으며 장사는 당에서 막부(幕府)의 속료명으로 지방관으로 볼 수 없으며 욕살과 처려근지의 직할지를 관장하는 현령급의 지방관으로 파악된다.[53]

당시 당나라 현령(縣令)의 업무는 풍속 교화의 교양 소송판결, 부세징수 등 행정권이 필요한 업무였으며 군사와 관련한 업무는 가지지 못하였으며[54] 장사의 직무는 군사(軍事) 분야에서 도독과 자사를 보좌하는 업무였으므로 가라달의 업무 또한 군사와 관련한 직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가라달은 욕살과 처려근지의 고위보좌관이며 장사가 군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특수 군사적 단위인 진(鎭)·보(堡)·수(戍)·관(關) 등과 같은 소성을 담당하는 임무를 수행하였을 것이다.[55] 따라서 고구려의 지방통치 조직은 욕살-처려근지

48) 武田幸男,「牟頭婁一族の高句麗王權」,『朝鮮學報』99, 1981, 160쪽.

49) 욕살과 처려근지를 동급으로 본다. 안시성 성주가 연개소문의 반란을 일으켰을 때 인정하지 않고 군사적인 대결 끝에 성주의 지위를 인정받은 사례를 근거로 들어 가라달을 욕살·처려근지의 속료로 파악하여 욕살·처려근지-루초의 2단계로 본다(노태돈, 앞의 책, 1999, 242-257쪽).

50) 3단계 설은 2단계 설과 같이 가라달을 욕살과 처려근지의 속관으로 보았으나 욕살이 처려근지의 상위 지방관임을 근거로 들었다(여호규, 앞의 논문, 1995, 32-33쪽; 임기환, 앞의 논문, 1995, 154쪽; 김현숙, 앞의 책, 2005, 348-353쪽).

51) 4단계 설은 사료 그대로 제대성에는 욕살, 제성에는 처려근지, 제소성에는 가라달, 성에는 루초가 파견되었다고 보았다(盧重國, 앞의 논문, 1979, 147-149쪽).

52) 지방 장관의 속관 중 하나였다고 이해된다(임기환,『고구려 정치사 연구』, 한나래, 2004, 188-191쪽).

53) 임기환, 앞의 논문, 1995, 154쪽.

54) 왕천유 저, 이상천 역,『중국고대관제』, 학고방, 2006, 119-120쪽.

55) 노태돈, 앞의 책, 1999, 245쪽.

-루초의 3단계의 구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욕살에 관한 추가적인 사료는 다음과 같다.

F-1. (중략) 내평과 외평에 각각 5부 욕살이 있다.[56]

F-2. 고려국(高麗國)은 지난날에 5부(部)로 나뉘어져 176성(城)·69만 7천호(戶)가 있었다. 이에 그 땅을 나누어 9도독부(9都督府) 42주(州) 1백현(百縣)으로 하고, 또 안동도호부(安東都護府)를 두어 통관(統管)케 하였다. 추장(酋長) 가운데 공이 있는 자를 뽑아 도독·자사(都督·刺史) 및 현령(縣令)을 제수하여 화인(華人)과 함께 백성을 참이(參理)하게 하였다.[57]

사료 F군은 고구려 관제에 대한 사료로 고구려 욕살에 관한 내용을 전하고 있다. 사료 F-1은 고구려의 내평과 외평에 각각 5부 욕살이 있어 고구려에 10명의 욕살이 존재하였음을 전한다. 사료 F-2를 보면 고구려는 5부로 나누어져 있으며 그 안에 176개의 성이 존재하였음을 전한다.

욕살의 사례로 『三國史記』의 오골성 욕살과 북부욕살(北部褥薩) 고연수, 남부욕살(南部褥薩) 고혜진이[58] 있다. 오골성 욕살은 성명(城名)을 언급하고 있기에 지방관으로 볼 수 있으나 고연수와 고혜진은 성명(城名)이 아닌 부명(部名)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북·남부 욕살은 중앙의 내평(內平)을 관장하는 욕살, 오골성 욕살은 외평(外平)을 관장하는 욕살로 파악하여 내평과 외평에 각각 5부 욕살이 있다고 해석함이 가장 적절해 보인다.[59]

이관 관련하여 고구려 중기 지방관인 수사의 파견 위치를 설명한 연구가 주목된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수사가 파견된 지역으로 고모루성이 확인되었다. 이 지역 외에 요동, 두만강, 압록강, 대동강 유역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대동강 유역은 왕도가 있던 지역임으로 지방관의 파견을 통해 통치하지는 않

56) 『隋書』 卷81, 列傳 第46, 東夷 高麗, "復有內評·外評·五部 褥薩".

57) 『舊唐書』 卷199, 列傳 第149, 上 東夷 高麗.

58) 『新唐書』 卷220, 列傳 第145, 東夷 高麗.

59) 임기환, 앞의 논문, 1995, 152-153쪽.

았을 것으로 보인다.[60]

따라서 중국과 국경이 맞닿는 요동지역과 북부여가 위치한 송화강 유역 과거 고구려의 중심지였던 압록강유역, 옥저·동예 등과 관계가 있던 두만강 유역, 백제·신라와의 관계에서 중요성을 지니는 한강유역 등 5개 영역으로 나누어져 각각 중심성에 욕살을 파견한 것은 아니었을까 추측된다.[61]

이렇게 고구려의 지방통치를 검토해 보았다. 고구려는 영토를 넓힌 이후 지방관을 파견하여 획득한 영토를 통치하고자 하였을 것이며 각 지역에 수사를 파견하여 그 지역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후에는 수사라는 용례는 점차 사라지게 되었고 발달 된 지방통치체제가 성립되었을 것이다.

고구려는 욕살-처려근지-루초의 3단계로 지방을 통치하였다. 대성에는 욕살이 파견되었으며 그 아래에 성에는 처려근지가 파견되었다. 욕살은 내평과 외평에 5부 욕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내평은 중앙을 의미하며 외평은 그 외의 지역을 통치하는 것으로 고구려에 10명의 욕살이 파견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고구려는 요동지역에 축성과 지방관을 파견하여 지배를 공고히 하였다. 이러한 지방관은 각 성에 파견되어 그 지역의 지배와 조세 징수 등의 관리를 하였을 것이다. 또한, 교통로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음으로써 요동과 한반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요동은 고구려에 새로 편입된 지역이다. 4세기 말까지 후연이 요동을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고구려가 산성을 쌓기에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다면 고구려 산성이 본격적으로 축조되기 시작한 것은 요동성을 장악하고 안정적으로 이 지역을 점유하였을 5세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62]

다음 절에서는 요동지역에 분포된 성을 파악하고 그 성에 어떤 지방관이 파견되었는지 파악해보고자 한다.

---

60) 최희수, 「고구려 후기 지방통치의 구조와 의미」, 『고구려발해연구』 32, 2008, 71쪽.

61) 최희수, 위의 논문, 2008, 71쪽.

62) 정원철, 『고구려 산성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2017, 445쪽.

제 2 절 요동지역의 산성과 지방관의 존재 양태

성(城)이란 방어의 목적이 가장 큰 건축물로 고대국가의 발전에 중요한 건축물이다. 군사방어를 위해 축조된 성은 주요 교통로 상의 요충지에 분포해 있으며 이러한 성은 방어의 목적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지방지배의 치소성(治所城)으로도 운용되었다.[63]

고구려가 요동확보에 성공하면서 가장 큰 변화는 국경의 변화였다. 고구려는 요동을 확보하면서 요하를 경계로 중국세력과 맞닿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로 요동지역에 축성을 단행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방어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결국, 고구려는 요하 동안을 따라 여러 성을 축조함으로써 방어선을 구축하였다.[64]

고구려는 이러한 성을 초기부터 축성하여 운영하였다. 특히 고구려가 초기 도읍지인 환인(桓仁) 지역 외곽의 신빈(新賓)과 통화(通化) 지역 등에서 일찍부터 한(漢)의 평지 토성을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국가의 평지 토성과는 달리 산 정상부에 석성을 축조하였다.[65] 즉 고구려의 성은 산을 중심으로 석성을 축조하고 해당 지역을 방어 및 지배하고자 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고구려 초기에는 산 정상부에 방어목적의 성을 주로 축조하였다. 고구려 중기부터 광개토왕 시기 영토가 확장된 이후에는 효율적인 지방통치를 위해 거점별 치소성이 필요하게 되었다.[66] 요동지역에는 현재 121기의 산성이 확인되며[67] 요동지역의 산성 분포도를 보면 아래 지도와 같다.

---

63) 양시은, 앞의 책, 2016, 1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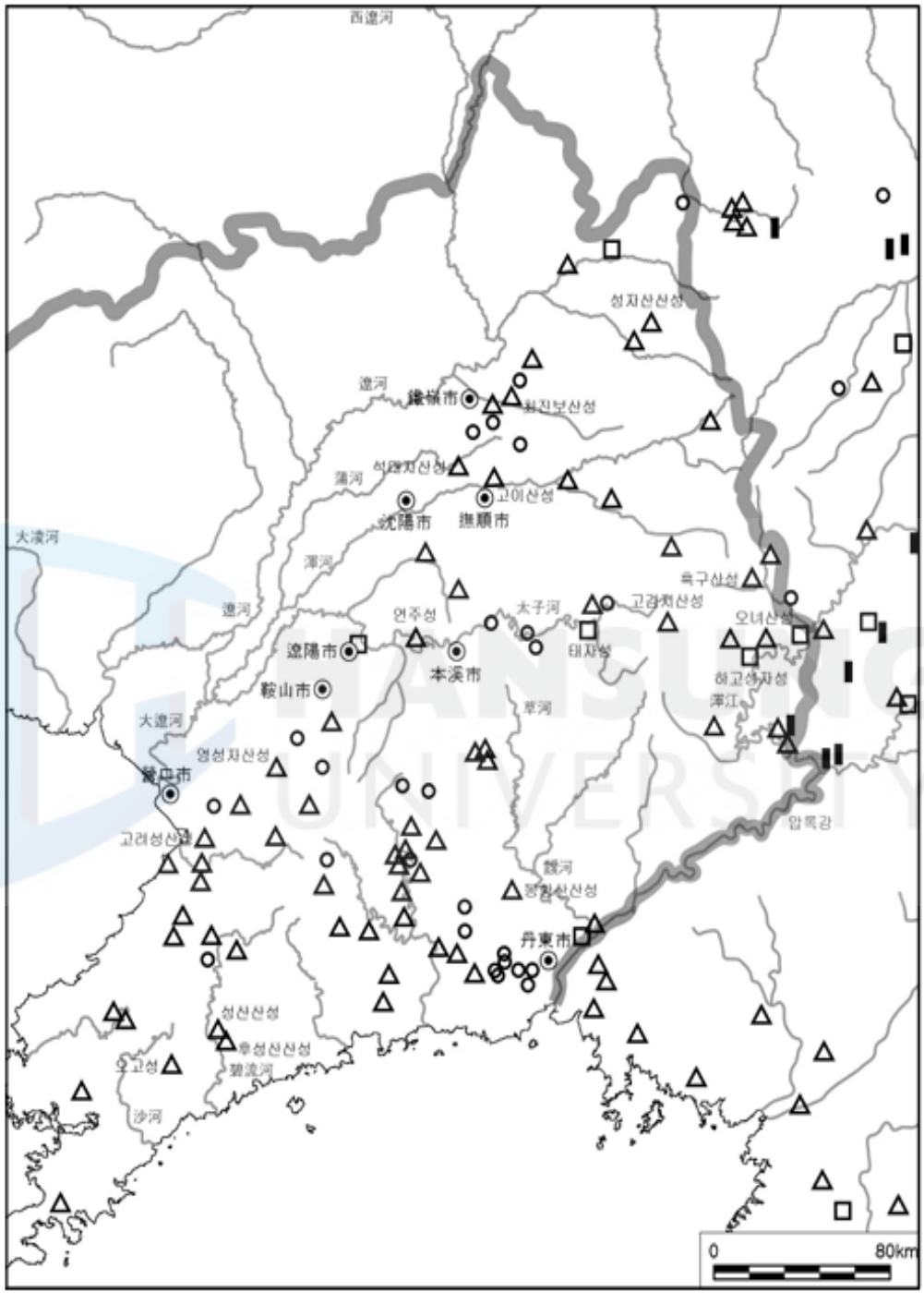
64) 권성하, 「5~7세기 요하 유역 고구려의 육살급 성과 관방체계」, 『한국고고학회 학술대회』 139, 2026, 40쪽.

65) 양시은, 「고구려 성의 기원에 대한 일고찰」, 『고구려발해연구』 47, 2013, 10쪽.

66) 양시은, 앞의 책, 2016, 12쪽.

67) 이경미, 앞의 책, 2016, 78쪽.

68) 양시은, 앞의 책, 2016, 18쪽.



△: 산성 □: 평지성 ○:보루 ▮:관애

[지도1] 요동지역 산성 분포도[68]

축성은 산 하천 등 자연 지형을 이용하여 축성하는 것으로 적을 방어하는 것이 1차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국경인 요하를 따라 성을 배치한 후 요동에서 압록강을 거쳐 평양으로 이어지는 교통로를 따라 다수의 성을 축조하였다.[69]

요동반도 내륙에는 초하(草河)·초자하(哨子河)·대양하(大洋河)·벽류하(碧流河) 등의 주요 하천이 서북에서 동남 방향으로 흘러 압록강 혹은 황해로 흘러든다. 요동남부에 위치한 산성은 천산산맥(千山山脈)을 발원지로 하는 주요 하천을 따라 발달 된 교통로, 발해만 연안의 교통로와 각 주요 하천의 지류에 축성되었다.[70] 즉 고구려는 국경의 중심인 요하를 따라 축성한 것뿐만이 아닌 요동 내륙에 위치한 주요 하천을 따라 둘레 3km 이상의 대형 산성을 축조하였다. 이러한 점은 성이 방어적인 목적과 지방통치의 목적뿐만이 아닌 주요 교통로 통제 및 관장하는 역할을 함께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 산성은 둘레 크기에 따라 구분 가능하며 3km 이상은 대형, 1~3km는 중형, 1km 이하는 소형, 0.4km 이하는 초소형 산성 및 보루성(堡壘城)으로 구분하고 있다.[71]

단순 성의 크기를 비교로 치소성으로 비정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으나 성의 크기로 대성-제성-성으로 구분하고 있음을 보면 성의 크기가 클수록 높은 지방관이 파견되었을 것이다.[72] 즉 3km 이상의 대형 산성[73]이 축조되었다는 것은 해당 지역이 군사적 지리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였음을 의미하며 고위 지방관이 파견되어 해당 지역을 지배하고 통제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고고학적으로 산성에는 기와가 출토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문헌사료에서 보이는 요동이나 현도 등 수십 성(城)에 모두 관사(官司)를 설치하여 통치하였다[74]는 기록과 고구려 관청에 기와가 사용되었다는 『舊唐書』의

---

69) 양시은, 앞의 책, 2016, 18쪽.

70) 이경미, 앞의 논문, 2017, 78쪽.

71) 양시은, 앞의 책, 2016, 154쪽.

72) 임기환, 「요동반도 고구려성 현황과 지방지배의 구성」, 『한국고대사연구』 77, 2015, 140쪽.

73) 3km 이상의 대형 산성이 축조되는 것은, 5세기 요동을 확보하고 나타난 고구려 산성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정원철, 앞의 책, 2017, 446쪽).

74) 『北使』 卷94, 列傳 第82, 高麗, "復有遼東玄菟等數十城, 皆置官司以統攝".

기록[75]과 일치한다.[76] 요동 내에 주요 하천에 위치하며 3km 이상 고구려 산성에서 기와가 함께 출토된 산성은 아래 표와 같다.

	산성 명	위치	규모	특징, 유적, 출토유물
초하·애하유역권	봉황산산성	단동시	약 16km	오골성으로 비정, 요동 최대 산성, 연화문와당 기와 토기편, 철기 출토
초자하·대양하유역권	낭랑성산성	수암	약 3.5km	기와, 연화문와당 출토
벽류하유역권	적산산성	개주시	2.3km, 3.5km, 5km	연구자마다 상이한 둘레
	후성산산성(후성)	대련시	약 4.6km	성산산성과 마주 보고 있는 산성
	성산산성(전성)	대련시	약 3.1km	건물지, 연화문와당, 기와편, 토기 출토
	위패산성	보람점시	약 5km	연화문와당, 암키와, 환두대도 출토
대청하·발해만연안권	고려성산산성	개주시	약 5km	건안성으로 비정, 고구려 기와, 등자, 철촉 출토
	대흑산산성	대련시	약 5km	비사성으로 추정되며 연화문와당 출토

[표1] 요동반도 하천 일대 고구려성 현황표[77]

위 표와 같이 요동 내륙의 하천에는 3km가 넘는 대형 산성이 축조되어 있다.

먼저 초하는 산간지역에서 발원한 지류로 이루어져 있으며 봉성시 전체를 관통하여 봉황산 서북쪽에서 애하(靉河)와 합쳐져 동남쪽으로 흘러 압록강에 합류한다. 초하(草河) 유역은 봉황산성(이하 오골성)까지 내려오는 주요 교통로가 되는데 이를 따라 산성이 분포해 있다.[78]

---

75) 『舊唐書』 卷199 上, 列傳 第149 上, 東夷 高麗, "唯佛寺·神廟及王宮·官府乃用瓦".

76) 양시은, 앞의 책, 2016, 12쪽.

77) 임기환, 앞의 논문, 2015; 양시은, 앞의 책, 2016(위 표는 두 논문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오골성은 문헌사료에서도 욕살이 파견된 것으로 언급되어있다.[79] 오골성은 현재 요녕성(遼寧省) 봉성시(鳳城市)에 위치한 봉황산성으로 비정되고 있다.[80] 오골성 성벽의 전체 둘레는 15.955m이며 포곡식 석축 산성이다. 성 내부에는 2곳의 망대가 발견되었으며 주변에는 연화문와당을 포함한 다량의 고구려 기와가 발견되었다. 이 외에도 성 내의 대형 건물지에서는 심발, 호 등과 같은 토기와 낫, 화살과 화살촉 등의 철기류 그리고 승문, 타날, 무문양기와와 연화문와당 등이 출토되었다.[81]

오골성은 애하 좌측에 위치하며 애하와 최단 거리로 약 100m 떨어져 있다.[82] 여기서 애하를 통해 박작성과 연결할 수 있고 육로를 통해 대행성이 위치한 단동시(丹東市)와 연결할 수 있다.[83] 평양으로 가기 위해서는 단동 일대에서 압록강을 건너는 것이 효율적이며 요동에서 단동으로 가기 위해서는 오골성을 거쳐야 하는 만큼 교통로의 요지에 위치한 성이라고 할 수 있다.[84]

G. 태종이 장군 설만철(薛萬徹) 등을 보내 쳐들어왔다. 바다를 건너 압록강으로 들어와 박작성(泊灼城) 남쪽 40리 되는 곳에 도달하여 멈추어 진영을 쳤다. 박작성주 소부손(所夫孫)이 보병과 기병 1만여 명을 거느리고 이를 막았다. (중략) 우리 장수 고문(高文)이 오골(烏骨), 안지(安地) 등 여러 성의 병사 3만여 인을 거느리고 나와 지원하였는데, 둘로 나누어 진을 쳤다.[85]

사료 G에서는 당의 장수 설만철(薛萬徹)이 바다를 건너 압록강으로 들어와 박작성 남쪽 40리 되는 곳에 진을 치고 박작성을 공격하였음을 전하는 사

78) 정원철, 앞의 책, 2017, 58쪽.

79)『三國史記』卷21, 高句麗本紀9, 寶藏王 4年(645)“烏骨城耨薩老耄.”

80) 여호규·강현숙 외,『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과 유물』, 동북아역사재단, 2020, 86-87쪽.

81) 양시은, 앞의 책, 2016, 53쪽.

82) 김주형, 앞의 논문, 2022, 10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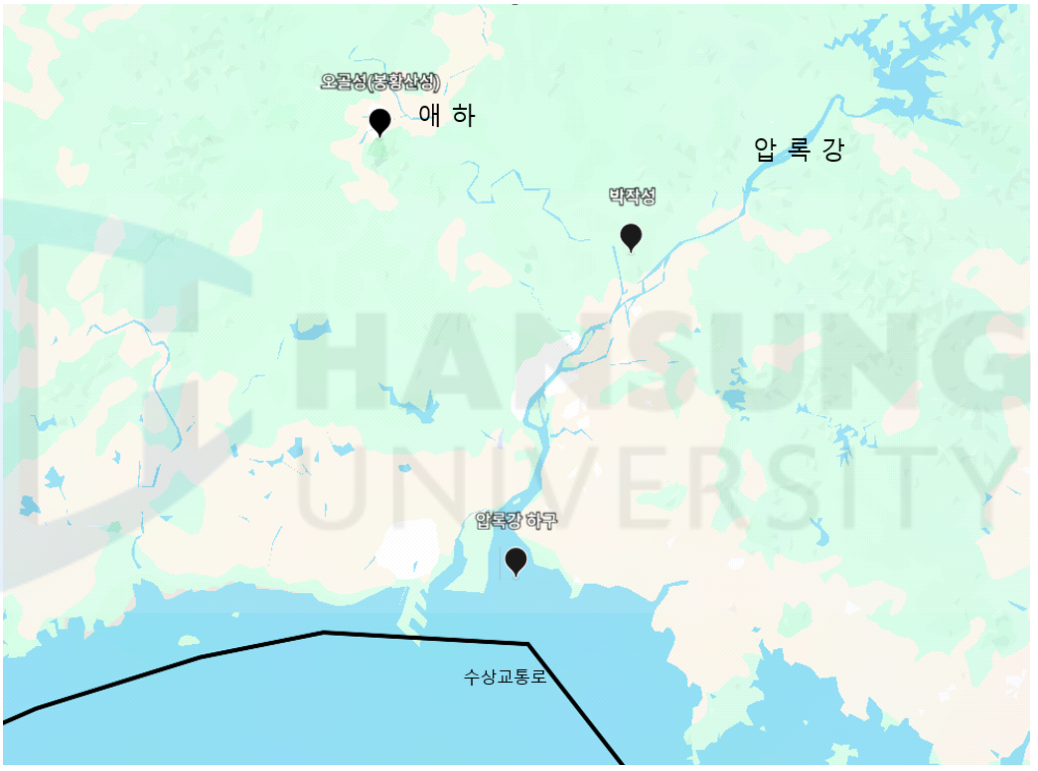
83) 임진수,「고구려의 압록강 하류 진출과 방어체계 운용」,『백산학보』129, 2020, 199쪽.

84) 양시은, 앞의 책, 2016, 52쪽.

85)『三國史記』卷22, 高句麗本紀10, 寶藏王 7年(648).

료이다. 압록강 하구에 위치한 박작성은 현재 호산산성(虎山山城)으로 비정되며[86] 서쪽으로 애하가 흐르고 있다. 박작성에는 대형 돌 건축 유지가 발견되었으며 길이 3.7m의 목선과 함께 나무 노가 출토되었다.[87] 이는 고구려가 배를 이용한 활동을 하였음을 입증하는 유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고구려는 산동반도에서 평양성으로 이어지는 해상교통로를 통제할 수 있는 지역에도 성을 쌓았는데 압록강 하구에 위치한 박작성은 이와 관련된 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88] 오골성과 박작성의 위치는 아래 지도와 같다.



[지도2] 오골성과 박작성 위치도[89]

앞서 언급하였듯 애하와 초하는 압록강과 합쳐져 압록강 하구를 통해 황해로 나아갈 수 있는 길목이다. 다음은 압록강을 활용한 수로와 압록강 하구에 관한 사료이다.

---

86) 여호규·강현숙 외, 앞의 책, 2020, 139-140쪽.

87) 신영식·최근영 외, 『고구려 산성과 해양방어체제 연구』, 백산자료원, 2000, 125쪽.

88) 백다해, 앞의 논문, 2023, 27쪽.

89) 원본 : 구글어스, 필자 제작.

H-1. [을불은]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1년 만에 그 집을 떠나, 동촌(東村) 사람 재모(再牟)와 함께 소금 장사를 하였다. 배를 타고 압록(鴨淥)에 이르러 소금을 내려놓고 강 동쪽 사수촌(思收村) 사람의 집에 머물렀다.[90]

H-2. 마자수는 고려에서 일명 엄수라고도 하는데, 지금 이름은 압록수이다. 그 나라에 서로 전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강물은 동북쪽의 말갈국 백산으로부터 나온다. 물의 색이 오리 머리와 비슷하다. 그러므로 속명을 압록수라 한다.' 요동[성]에서 500리 떨어져 있으며, 국내성 남쪽을 지난다. 또한, 서쪽에서 한 물줄기와 합쳐지는데 바로 염난[수]이다. 두 물줄기가 흐름이 합쳐져 서남쪽으로 흘러 안평성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간다. 고려 안에서 이 강이 가장 크고 물결이 맑으며 [강물이] 지나는 나루터에는 모두 큰 배를 모아두었다. 그 나라는 이 강에 의지하여 천연의 요새지로 삼는다.[91]

사료 H-1의 을불은 미천왕이 왕위에 오르기 전의 이름이다. 사료에서 을불은 봉상왕을 피해 달아나 소금장수를 하였다. 을불은 소금 장사를 하기 위해 배를 타고 압록강에 이르렀다. 이를 통해 고구려는 이미 4세기에도 배를 통해 인구 및 자원이 이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료 H-2는 압록강 하구에 관한 사실을 전한다. 압록강은 요동성에서 500리 떨어져 있으며 국내성 남쪽을 지나 흐른다. 압록강 하구는 황해로 나아갈 수 있는 길목이며 배가 황해로 나올 시 평양 혹은 요동남단의 연안을 따라 이동할 수 있는 중요한 길목이다. 또한, 고구려는 이 강에 의지하여 천연의 요새로 삼았다는 내용을 통해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요충지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압록강 하구는 여러 강이 만나고 바다로 접어드는 위치에 있었기

90)『三國史記』卷17, 高句麗本紀5, 美川王 元年(300).

91)『翰苑』蕃夷部, 高麗.

때문에 중국과 맞닿은 최전선인 요동, 과거 수도인 국내성, 이후 수도인 평양을 이어주는 요충지라고 할 수 있다.[92] 따라서 고구려가 요동을 확보하고자 한 이유는 원활한 해상교통로를 활용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다음으로 대청하 유역에서 가장 큰 성은 개주(蓋州) 청석령(靑石嶺)에 위치한 고려성산성(高麗城山城)이며 건안성(建安城)으로 비정된다.[93] 건안성은 둘레 5km가 넘는 대형 산성이며 개주(蓋州) 지역은 한(漢) 대부터 평곽현(平郭縣)이 설치되었고 철관(鐵官)과 염관(鹽官)이 설치되었던 지역이다.[94]

개주는 요동평원에서 요동반도로 진입하는 길목으로 천산산맥을 넘어 대양하(大洋河) 유역의 수암과 벽류하 일대로 나아 갈 수 있다.[95] 또한, 건안성에서 서쪽으로 나아가면 요동만을 따라 요하 하구까지 도달 가능하며[96] 발해만을 끼고 요동남부를 다닐 수 있는 요동평원과 요동반도의 전략적 요충지이자 수륙 양면 교통의 요지이다.

이러한 중요성으로 건안성은 당과의 전쟁 당시 주요 점령 대상이었다. 당의 장수 장손무기(長孫無忌)는 건안과 신성의 병사가 10만[97]이라고 하였으며 당이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안동도호부 아래 9도독부 중 하나인 건안주도독부로 편제하였다는 것과 욕살을 도독에 비견하였다는 점에서 욕살급 성으로 추정된다.[98]

건안성은 요하 하구에서 나와 발해만 해안을 끼고 요동남부로 이동할 수 있다. 이 기점에서 요동남부에 위치한 성은 고구려 내륙으로 진입하는 적을 막아내고 압록강 하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해야 한다. 요동 남부에 상륙한 적이 요동 남부를 공격한 이후 그대로 북상하여 요동 내륙으로 진입할 경우 요동 내륙의 요동성 안시성과 같은 성을 앞뒤로 공략할 수 있으며 혹은 배를

92) 임진수, 앞의 논문, 2020, 122쪽.

93) 임기환, 앞의 논문, 2015, 133쪽; 이경미, 「鴨綠江~遼河 유역 고구려 성곽과 지방통치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7, 101쪽; 여호규·강현숙 외, 앞의 책, 2020, 249쪽.

94) 『漢書』 卷28, 上, 地理志8 上.

95) 여호규, 『고구려 성Ⅱ』, 국방군사연구소, 1999, 348쪽.

96) 여호규·강현숙 외, 앞의 책, 2020, 249쪽.

97) 『三國史記』 卷21, 高句麗本紀9, 寶藏王 4年(645).

98) 임기환, 앞의 논문, 2015, 133쪽; 이경미, 앞의 논문, 2017, 100쪽.

타고 압록강 하구를 거쳐 곧바로 수도 평양을 공격할 수 있다. 이는『舊唐書』에서 당 태종이 장량(張亮)에게 래주(萊州)에서 바다를 건너 평양으로 향하게 한 것으로 알 수 있다.[99]

이와 관련하여 가장 큰 중요성을 가지는 성은 요동 서남단에 위치한 비사성(卑沙城)이라고 할 수 있다. 비사성은 현재 대흑산산성(大黑山山城)에 비정되고 있으며 대련시(大連市)에 위치해 있다.[100]

I. 4월에 장량(張亮)이 수군을 거느리고 동래(東萊)에서 바다를 건너 비사성(卑沙城)을 습격하였다. [비사] 성은 4면이 깎아지른 듯 험준하였고, 단지 서문(西門)으로만 오를 수 있었다. 정명진(程名振)이 군사를 이끌고 밤에 도착하니, 부총관 왕대도(王大度)가 먼저 [비사성에] 올라갔다.[101]

위 사료는 당나라 장수 장량이 수군을 이끌고 산동반도의 동래에서 출발하여 비사성을 공격한 사료이다. 비사성은 4면이 깎아지른 험한 위치에 축성되었으며 고구려가 요동을 차지한 이후인 5세기 무렵 축조된 것으로 보고 있다.[102] 이외에도 비사성은 수·당 전쟁에서 전장의 무대가 된 만큼 전략적 가치가 증명된다.

수·당의 수군이 평양으로 진격하기 위해서 비사성은 반듯이 넘어야 하는 성이었다. 비사성은 발해만과 황해를 한눈에 조망하는 것이 가능하여 요동반도 연안로를 이용한 해상 교통을 장악하는데 최적의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103] 이러한 비사성에는 처려근지가 파견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104] 건안성과 비사성의 위치는 아래 지도와 같다.

---

99)『舊唐書』卷199, 上 列傳149 上 東夷 高麗,

100) 여호규·강현숙 외, 앞의 책, 2020, 159쪽.

101)『三國史記』卷21, 高句麗本紀9, 寶藏王 4年(645).

102) 孫德連, 徐吉洙 옮김,「비사성(卑沙城)」,『고구려발해연구』9, 2000, 407쪽.

103) 여호규·강현숙 외, 앞의 책, 2020, 159쪽.

104) 임기환, 앞의 논문, 2015, 136-137쪽.



[지도3] 건안성과 비사성 위치도[105]

다음으로 요동남단을 타고 이동하면 천산산맥 동남부 일대 유역에 넓은 하천이 나오는데 벽류하와 대양하이다. 이들 하천은 개현에서 분수령을 넘어 벽류하를 통해 장하로 이어지는 교통로를 구성하거나 개현에서 대청하 상류에서 분수령을 넘어 수암으로 이어져 대양하를 통해 발해만으로 이어지는 교통로를 구성하고 있다.[106]

먼저 벽류하는 요동반도 남쪽에서 가장 큰 강으로 천산산맥에서 황해로 흘러든다. 즉 벽류하는 요동반도 내륙에서 요동반도 남쪽 연안 지역을 이어주는 주요 하천이라고 할 수 있다.[107]

벽류하에는 고구려 산성이 분포해 있는데 그중 벽류하 상류에는 적산산성(赤山山城)이 위치한다. 벽류하에 위치한 산성은 지세가 험하여 방어하기 쉽

105) 원본 : 구글어스, 필자 제작.

106) 임기환, 앞의 논문, 2015, 137쪽.

107) 정원철, 앞의 책, 2017, 70쪽.

고 적이 공격하기에는 어려운 위치이기에 벽류하의 산성은 수로와 육로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해 있다고 할 수 있다.[108]

하류로 내려오면 성산산성(城山山城)과 후성산산성(後城山山城)이 축성되어있다. 성산산성은 현재 중국 요령성 장하시(庄河市) 성산향(城山鄉) 사하촌(沙河村) 북쪽 성아산(城兒山)에 있으며 후성산산성은 성산산성과 약 1.5km 떨어져 있는데 자매성(姉妹城)으로 보인다.[109]

성산산성은 산상형 포곡식 산성이지만 성안 평탄면과 완만한 경사면에 계단상 대지가 발달하여 주민들의 입거성이 매우 큰 성이며 후성산산성은 하곡평원형 포곡식산성이지만 지세가 험준하여 방어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성산산성은 치소성의 기능을 하였고 후성산산성은 전쟁 시 입거하는 방어성의 기능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110]

벽류하 상류 서쪽에는 위패산성이 위치해 있다. 위패산성은 둘레 5km로 초대형 산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성산산성과 더불어 벽류하 좌우를 방어하며 발해만에서 접근하는 적을 방어하는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다. 성산산성과 위패산성은 그 위치와 중요도로 볼 때 처려근지가 파견된 것으로 추정된다.[111]

다음으로 대양하는 천산산맥에서 요동반도 남쪽으로 나와 황해로 흐른다. 요동에서 압록강 하류로 가기 위해서 수암(岫巖)을 반듯이 지나가야 한다. 수암은 대양하를 따라 요동반도 남쪽의 해안지대로 직진할 수 있으며 대양하의 지류인 초자하(哨子河) 연안을 가로질러 오골성과 연결된다.[112]

요동반도 내륙 교통의 중심지로 그 가운데 중심이 되는 성은 낭랑성산성(娘娘城山城)이라고 할 수 있다. 낭랑성산성은 둘레 3.5km로 산성 내에 여러 가지 중요시설이 남아있는 것으로 수암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113] 성의 규모와 중요성으로 낭랑성산성을 다벌악주(多伐嶽州)로 비정하여 욕살이 파견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114]

---

108) 여호규·강현숙 외, 앞의 책, 2020, 263쪽.

109) 서길수, 「벽류하(碧流河) 유역의 고구려 산성과 관방체계」, 『고구려발해연구』 11, 2001, 138쪽.

110) 임기환, 앞의 논문, 2015, 139쪽.

111) 임기환, 앞의 논문, 2015, 138-139쪽.

112) 여호규·강현숙 외, 앞의 책, 2020, 350쪽.

113) 정원철, 앞의 책, 2017, 68-70쪽.

J. 가을 7월에 우진달과 이해안이 우리 국경에 들어와 모두 백여 차례 싸워 석성(石城)을 공격하여 빼앗고 나아가 적리성(積利城) 아래에 이르렀다. 우리 병력 만여 인이 성을 나가 싸웠으나 이해안이 공격하여 물리쳤다. 아군의 죽은 자가 3,000명이었다.[115]

사료 J는 647년 당나라 장군 우진달과 이해안이 산동반도에서 바다를 건너 요동 남부의 석성과 적리성을 공격한 사료이다. 이에 고구려군 만여 명이 나가 싸웠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료로 볼 때 성산산성과 낭랑성산성이 각각 석성과 적리성에 비정된다.[116] 석성과 적리성은 사료에서 보이듯 바다를 건너 해안에서 공격이 가능한 지역에 위치해야 하며 벽류하 좌우를 방어하여 발해만에서 접근하는 적군을 막아야 한다. 이에 성산산성과 낭랑성산성이 비정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118]

HANSUNG UNIVERSITY

114) 노태돈, 앞의 책, 1999, 241쪽.

115) 『三國史記』 卷21, 高句麗本紀10, 寶藏王 6年(647).

116) 王綿厚, 『高句麗古城研究』, 文物出版社, 2002, 86쪽; 여호규·강현숙 외, 앞의 책, 2020, 195, 350쪽.

117) 원본 : 구글어스, 필자 제작.

118) 이와 달리 석성을 성산산성에 적리성을 위패산성에 비정한 견해가 있다(임기환, 앞의 논문, 2015, 139쪽).



[지도4] 요동남부 산성 위치도[117]

이렇게 이번 장에서 요동지역의 지방관 파견과 지방관이 파견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주요 성들을 확인하였다. 고구려는 요동을 확보하면서 국경 지역의 방어와 치소성의 목적으로 축성을 단행하였다. 고구려는 욕살-처려근지-루초의 3단계로 지방을 통치하였다. 치소성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으로 성의 크기에 맞게 각 성에 지방관을 파견하여 해당 지역을 지배하게 하였다. 또한, 성은 각 지역의 주요 교통의 요지에 축성되었으며 이러한 교통로를 관장하는 업무도 함께 하였을 것이다. 특히 요동의 주요 하천 근처에도 성과 지방관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때 하천도 교통로로써 함께 사용되었을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욕살이 파견된 성으로는 사료에 나타난 오골성이 있다. 오골성은 애하 근처에 위치하며 애하를 통해 처려근지가 파견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박작성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성은 주로 압록강 하구의 교통을 관장하였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욕살이 파견되었으리라 추정되는 건안성과 낭랑성산성이 있다. 건안성은 개주시의 대청하 유역에서 가장 큰 성으로 여러 사료에서 그 중요

성을 보이고 있다. 개주는 벽류하와 해로로는 발해만을 끼고 요동 남단을 지날 수 있는 교통의 요지라고 할 수 있다.

낭랑성산성은 대양하에 유역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성으로 요동을 지나 압록강 하구로 나아가기 위해 반듯이 거쳐야 하는 지역에 위치고 남쪽으로는 요동남단 해안지대로 갈 수 있는 교통의 중점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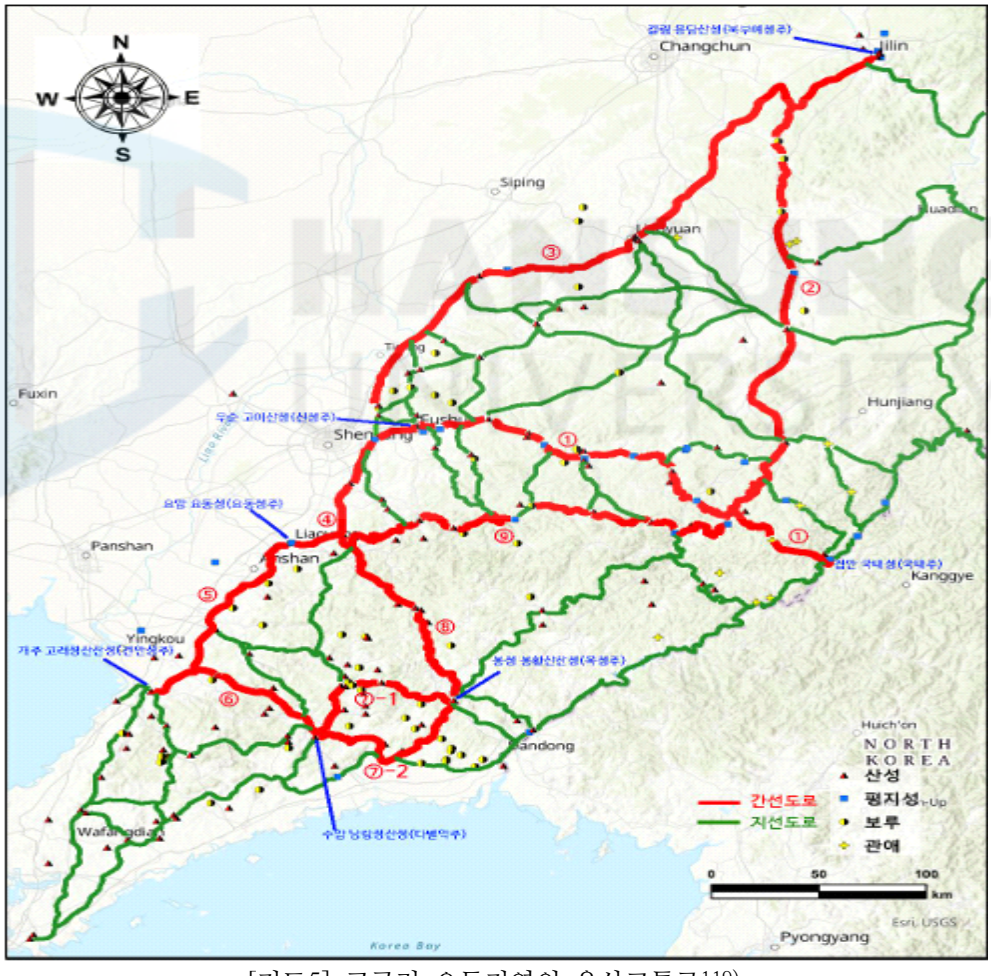
그 외 벽류하의 성산산성과 후성산산성, 위패산성, 비사성은 요동 남단을 방어하는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이며 처려근지가 파견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요동지역에서의 고구려성 배치를 보면 각 성은 요동만과 발해만 황해로 흐르는 하천유역을 끼고 축성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볼 때 고구려는 각 하천을 이용하여 바다로 나와 해상교통로를 이용하였을 가능성을 볼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교통로의 이용이 고구려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하도록 하겠다.

HANSUNG UNIVERSITY

제 4 장 요동지역 확보를 통한 이점과 교통로 다변화의 의미

고구려는 요동을 확보하고 넓어진 영토를 효율적으로 방어 및 지배하기 위해 요동지역에 산성을 축조하였고 그 성에 지방관을 파견한 지방통치를 실시하였다. 각 지역에 축성과 지방통치는 각 지역을 이어주는 교통로의 발달로 이어졌다. 요동지역의 주요 성과 교통로는 아래 지도와 같다.



[지도5] 고구려 요동지역의 육상교통로[119]

119) 김주형, 앞의 논문, 2022, 164쪽.

요동을 확보한 고구려는 축성을 단행하면서 각 지역에 성을 중심으로 교통로가 형성되었다. 또한, 고구려의 영토 내부의 교통로 외에도 중국세력과 국경이 맞닿게 되면서 중국 중원까지 연결되는 교통로가 활발히 이용되었다.[120]

이외에도 해상교통로가 열리게 되면서 중국 남조 국가와 교류를 활발하게 이어 나갔다. 이러한 점은 고구려의 외교와 경제 성장에 도움을 주었다. 아래는 요동을 통한 중국세력과의 교류를 보여주는 사료이다.

K-1. 소제 경평 2년(424)에 련(璉)이 장사(長史) 마루(馬婁) 등을 보내어 방물을 바쳤다. 이에 [송의 황제는] 사신을 보내 수고를 치사(致謝)하였다. 황제가 사지절·산기상시·도독영·평이주제군사 정동대장군·고구려왕·낙랑공(使持節·散騎常侍·都督營·平二州諸軍事 征東大將軍·高句驪王·樂浪公)에게 고하노라. 동방에서 대대로 왕노릇하며, 선조의 공적을 잘 계승하였으니 그 아름다움은 이미 드러났고, 정성된 마음 또한 뚜렷하다. 요하(遼河)를 넘고 바다를 건너 본조(本朝)에 공물을 바쳤도다.[121]

K-2. 3년(481)에 사신을 보내와 貢物을 바쳤고, 배로 바다를 건너오는 사신의 왕래가 항상 있었다.[122]

K-3. [元嘉] 16년 18년(439)에 태조(太祖)가 북쪽을 토벌하고자 하여 련(璉)에게 말을 바치라 조서를 내리자 련이 말 800필을 바쳤다.[123]

---

120) 요동과 연결된 주요 교통로는 표 참조(백다해, 앞의 논문, 2023, 30쪽).

121) 『宋書』 卷97, 列傳 第57, 夷蠻 東夷 高句麗, "璉遣長史馬婁等詣闕獻方物, 遣使慰勞之, 曰 皇帝問使持節·散騎常侍·都督營 平二州諸軍事·征東大將軍·高句驪王·樂浪公, 纂戎東服, 庸績繼軌, 厥惠旣彰, 款誠亦著, 踰遼越海, 納貢本朝."

122) 『南齊書』 東南夷列傳, 高句麗, "遣使貢獻, 乘舶汎海, 使驛常通, 亦使魏虜, 然彊盛不受制."

123) 『宋書』 卷97, 列傳 第57, 夷蠻 東夷 高句麗, [元嘉] "十六年, 太祖欲北討, 詔璉送馬, 璉獻馬八百匹."

위 사료는 장수왕이 중국 남조에 사신을 보내 서로 교류한 내용을 전한다. 사료 K-1에서 장수왕은 장사 마루 등 사신을 송에 보내 공물을 바쳤다고 한다. 당시 고구려는 송으로 가기 위해서 육로를 통한 이동은 북위에 막혀있어 물리적인 접촉이 어려웠다. 그러나 사료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고구려는 바다를 통해 송에 도착한 점이다. 즉 고구려가 요동을 점령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항해는 후연이라는 세력에 막혀 다소 어려웠을 것이나, 요동을 점령한 이후에는 중국 남조까지 해상로가 확보되었음을 의미한다.

이후 중국 남조는 송이 멸망하고 남제가 새로 세워졌다. 사료 K-2는 고구려가 해상교통로를 통해 남제에 빈번하게 사신을 보낸 사실을 전한다. 이러한 해상로는 중국남조 국가를 방문하기 위해 빈번하게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해상교통로는 대량의 물품 교역에도 활용되었다. 사료 K-2는 송이 고구려에 말을 요구하자 고구려는 송에 말 800필을 보냈다. 233년 고구려가 오(吳)에 말 수백 필을 바쳤는데[124] 당시 오의 배에 실을 수 있는 말의 수는 80필이었다고 한다. 두 사료 간의 간극이 약 200년의 차이가 나지만 조선술과 항해술을 고려하였을 때 800필의 말이 이동하기 위해서는 최소 10척의 배가 동원되었을 것이다.[125]

고구려가 요동을 확보하고 얻은 이점은 해상로의 활용뿐만이 아니었다. 요동은 말과 소금, 철이 생산되는 지역이었다. 남조에서는 요동을 주요 말의 공급지로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126] 오나라 손권이 요동에서 말을 구입한[127] 정황은 이러한 사실을 보여준다.

『漢書』 지리지에서 요동의 평곽은 진·한 때부터 철과 소금이 생산되어 철관(鐵官)과 염관(鹽官)을 두었다고 한다.[128] 평곽에는 소금뿐만이 아닌 철도

---

124) 『三國志』 卷47, 吳書2, 吳主 孫權傳2, 嘉禾 2年(233) "間一年, 遣使者謝宏·中書陳恂拜宮爲單于, 加賜衣物珍寶. 恂等到安平口, 先遣校尉陳奉前見宮, 而宮受魏幽州刺史諷旨, 令以吳使自效. 奉聞之, 倒還. 宮遣主簿笮咨·帶固等出安平, 與宏相見. 宏卽縛得三十餘人質之, 宮於是謝罪, 上馬數百匹. 宏乃遣咨·固奉詔書賜物與宮. 是時宏船小, 載馬八十匹而還"

125) 백다해, 앞의 논문, 2023, 106쪽.

126) 백다해, 앞의 논문, 2023, 106쪽.

127) 『三國志』 卷25, 魏書25, 辛毗楊阜高堂隆, 辛毗 "帝方脩殿舍, 百姓勞役, 毗上疏曰, '竊聞諸葛亮講武治兵, 而孫權市馬遼東."

128) 『漢書』 卷28, 下 地理志8, 下 遼東君, "平郭有 鐵官 鹽官."

생산되었다. 후대의 사료이긴 하지만『隋書』에서 남실위(南室韋)는 고구려에 철을 공급받았다는 기록이 있다.[129]

또한『管子』에서는 요동의 끓인 소금이 있다고 하였으며[130]『通典』에서 고구려는 ”국내성 남쪽을 지나면 또 서쪽과 물길이 하나로 합쳐져 소금을 얻기 어려운 물이다“라고 기록하였다.[131] 고구려는 동옥저로부터 소금을 수취한 사실과[132] 미천왕이 소금장수 활동을 한 것으로 보아 고구려에서 소금이 확보 및 유통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고구려는 요동을 통해 해상 교류와 자원적 이점을 확보했다. 자원은 수상교통로를 통해 운반되었을 것이며 이러한 교통로는 아래 지도와 같다.

HANSUNG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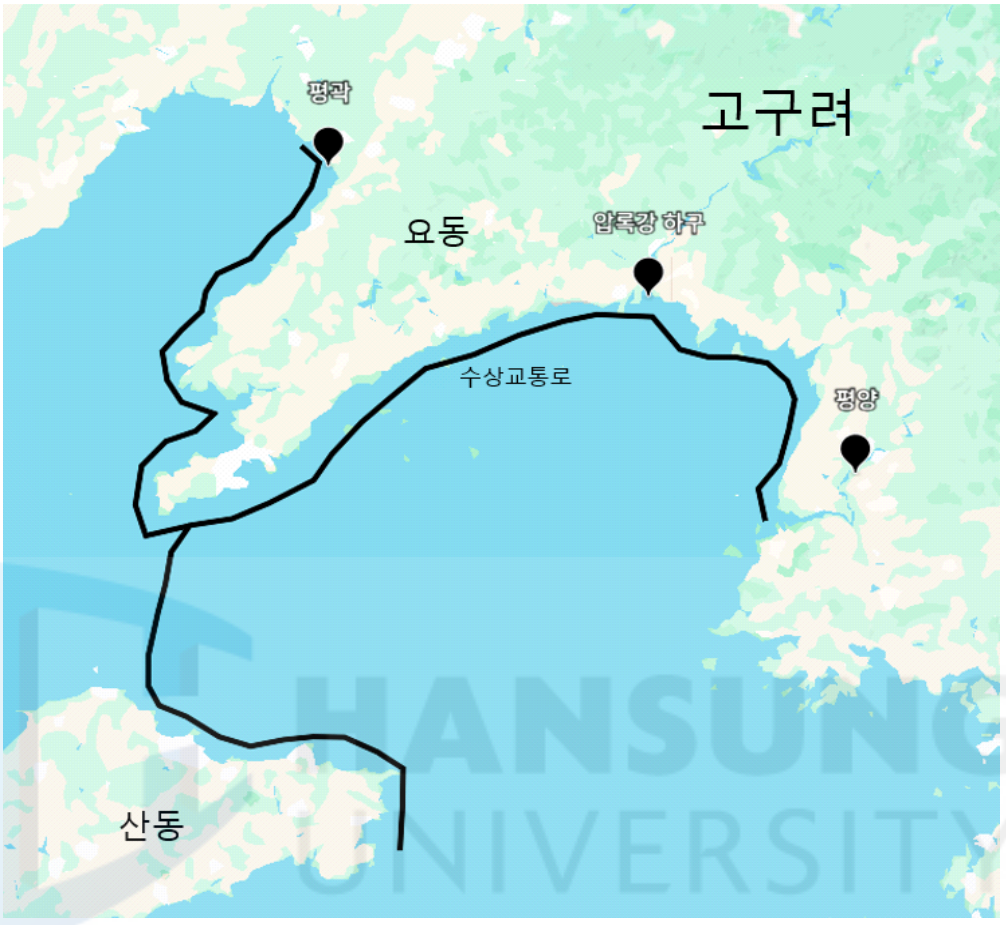
129)『隋書』卷49, 列傳 第49, 北狄 南室韋, “其國無鐵, 取給於高麗.”

130)『管子』卷23, 地數 第77, 管子輕重 10, 桓公問於管子曰.

131)『通典』卷186, 邊防 二, 東夷 下.

132)『三國志』卷30, 魏書30, 東夷傳30, 東沃沮.

133) 원본 : 구글어스, 필자 제작



[지도6] 고구려 수상교통로[133]

위 지도와 같이 고구려는 요동반도 연안을 따라 항해하였다. 앞 장에서 요동반도 내륙에는 크고 작은 강이 분포해 있고 그 강 주변에 지방관이 파견된 산성이 축성되어있었다. 이러한 강은 내륙에서부터 황해와 발해만으로 흐르며 고구려는 이러한 지형적 이점을 새로운 교통로로써 활용하였을 것이다. 즉 요동에 위치한 성들은 교통로와 관련하여 하천과의 거리가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교통의 편리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134]

L. 국도(國都)는 평양성(平壤城)으로 장안성(長安城)이라고도 하는데, 동서가 6리이며 산을 따라 굴곡이 지고 남쪽은 패수(浿水)에 닿아 있다.[135]

134) 김주형, 앞의 논문, 2022, 108쪽.

위 사료는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성이 패수에 닿아 있음을 전한다. 평양으로 천도하기 이전 수도였던 국내성은 압록강과 맞닿아 있었다.[136] 이와 마찬가지로 이후 평양으로 수도를 정하였지만, 평양성 또한 패수와 가까운 곳에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은 여러 지역에서 수상교통로로 들어오는 인구 및 산물을 효과적으로 운송 받기 위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운송이 가능하였음을 보여주는 사료는 아래와 같다.

M-1. 좌익위대장군(左翊衛大將軍) 내호아(來護兒)가 강회(江淮)의 수군(水軍)을 이끌었다. 배들이 수백 리 꼬리를 물고 바다에 떠서 앞으로 나아가 패수(浿水)로 들어갔다. 평양(平壤)에서 60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아군과 서로 만났는데, 나아가 공격하여 [고구려군을] 크게 깨뜨렸다.[137]

M-2. 소정방(蘇定方)이 요동도행군대총관(遼東道行軍大總管)이 되어 평양도(平壤道)로 나아갔다. 패강(浿江)에서 고구려 무리를 깨뜨리고 마읍산(馬邑山)을 빼앗아 영(營)을 세웠으며 마침내 평양을 포위하였다.[138]

위 사료는 수·당 전쟁 당시 수·당의 수군이 대동강으로 들어온 사료이다. 수나라 장수인 내호아(來護兒)는 평양에서 60리 떨어진 곳에서 고구려군과 충돌하여 크게 승리하였으며 그 승세를 타고 평양성을 공격하였으나 패하고 선소(船所)가 있는 곳까지 달아났다.[139]

당의 장수인 소정방은 대동강에서 고구려군에게 승리하고 마읍산(馬邑山)을 빼앗아 영(營)을 세워 평양을 포위하였다. 두 사료를 종합하여 보았을 때

135)『隋書』卷64, 東夷 列傳, 高句麗.

136) 국내성은 압록강과 최단 거리로 32m가량 떨어진 곳에 축조되었다(김주형, 앞의 논문, 2022, 110쪽 표 참조).

137)『三國史記』卷20, 高句麗本紀8, 嬰陽王 23年(612).

138)『新唐書』卷111, 列傳, 第36 蘇定方.

139)『隋書』卷64, 列傳 第29 來護兒.

공통적인 점은 대동강으로 배가 진입하였고 육지에 군대를 상륙시켰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동강 유역에 수·당의 수군이 정박하여 군대와 군수물자를 육지로 내렸을 것이다.[140]

비록 두 사료가 대동강을 통해 물자의 이동을 보여주는 사료는 아니지만 수·당의 수군이 대동강으로의 진입과 영을 세운 점으로 볼 때 당시 대동강에서 배의 이동이 가능하였으며 배의 이동에 따라 물자 이동이 가능하였음을 시사한다.

특히 요동이 안정화가 된 이후 고구려의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N. 세조(世祖) 때에 쇠(釗)의 증손 련(璉)이 처음으로 사신 안동(安東)을 파견하여 표를 올리고 방물을 바치면서 아울러 국휘(國諱)를 청하였다. 세조가 그 정성을 가상히 여겨 조명(詔命)으로 제계(帝系)의 이름 자를 그 나라에 내려 주고, 원외산기시낭(員外散騎侍郎) 이오(李敖)를 파견하여 련을 도독요해제군사 정동장군 영호동이중랑장 요동군개국공 고구려왕(都篤遼海諸軍事 征東將軍 領護東夷中郎將 遼東郡開國公 高句麗王)에 배수(拜授)하였다. (중략) 민호(民戶)의 수는 전 위(魏)나라 때보다 3배가 많았다.[141]

위 사료는 장수왕이 북위에 표와 방물을 바치자 북위 세조가 원외산기시낭 이오(員外散騎侍郎 李敖)를 고구려에 파견하여 장수왕을 도독요해제군사 정동장군 영호동이중랑장 요동군개국공 고구려왕(都篤遼海諸軍事 征東將軍 領護東夷中郎將 遼東郡開國公 高句麗王)으로 책봉하였음을 보여주는 기사이다. 고구려에 다녀온 이오는 고구려의 풍속을 기록을 기록하였는데 고구려의 인구가 이전의 위(魏)보다 3배가 많아졌음을 전하고 있다.

고구려는 요동을 확보하면서 요동에 거주한 민호를 자국의 민호로 편입하였다. 민호의 증가는 자연스럽게 인구의 증가로 이어졌을 것이며 지배대상의 증가는 지방통치체제의 개편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요동의 지방통치가 발전함

140) 이상훈, 「삼국통일기 고구려 마읍산의 위치와 군사적 위상」, 『군사』 104, 2017, 304-305쪽.

141) 『魏書』 卷100, 列傳, 第88, 高句麗.

에 따라 요동은 더욱 안정화가 되었을 것이며 고구려의 성장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요동의 확보는 고구려에 영토 팽창이라는 이점을 가져왔다. 그러나 이는 요동확보 이점의 단면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고구려는 요동을 확보하여 압록강 하구와 황해 발해만 연안을 따라 해상교통로가 열리게 되었으며 이러한 교통로는 평양과 중국 남조국가를 연결하는 외교의 창구로 활용되었다. 요동에서 나오는 철·소금과 같은 자원은 요동의 하천을 이용한 수상교통로를 따라 대동강으로 진입 후 평양까지 물자 수송을 가능하게 하여 경제 성장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따라서 고구려에게 요동은 단순 중국세력과의 국경지역으로 중국세력을 방어해야 하는 지역이 아닌 군사·경제·외교 등에 있어 여러 이점을 가져왔으며 이러한 이점은 5세기 고구려가 전성기를 맞이하여 동북아시아의 강국으로 성장하게 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고구려사에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HANSUNG UNIVERSITY

제 5 장 맺 음 말

요동의 확보와 지배는 고구려사에 있어 지정학적 중요성과 영토의 변화뿐만이 아닌 교통로의 확장으로 경제 및 외교의 성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본고는 고구려가 요동을 확보한 과정과 이후 지방통치체제와 산성분포 양상과 요동의 하천과 해상을 연결하는 수상교통로를 파악하여 수상교통로를 이용하여 경제와 외교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였다.

2장에서는 고구려의 요동 정벌 과정을 검토하였다. 고구려는 4세기 말부터 활발한 영토확장 전쟁을 통해 백제의 한강 유역과 요동지역을 자국의 영토로 편입하였다. 특히 요동은 고구려가 4세기 초반부터 영역화하기 위해 노력한 지역이었다. 미천왕과 고국원왕은 요동으로의 진출을 시도하였으나 선비족의 모용씨(慕容氏)에 의해 실패하였고 요동으로의 진출을 미루었다.

광개토왕이 즉위하면서 재차 요동으로의 진출이 시작되었다. 「廣開土王碑」에서 고구려는 395년 거란의 일족인 패려를 정벌하고 양평도를 지나 요동 일대를 둘러 살피고 국내성으로 환궁하였다. 당시 후연은 북위(北魏)와의 전쟁에서의 패배로 후방의 고구려군까지 상대할 여력이 없었으며 국력이 쇠약해진 상태였다.

후연은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광개토왕을 평주목(平州牧) 요동·대방이국왕(遼東·帶方二國王)에 책봉하였다. 이 책봉 기사를 통해 고구려가 395년 요동을 확보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400년 3월 양평의 현령이 반란을 일으킨 사건과 402년 고구려가 숙군성을 공격한 사실을 종합해 보았을 때 고구려의 요동 정벌은 400년 3월~402년 사이에 완수하였다고 할 수 있다.

고구려는 요동 정벌에 성공하고 요동이란 공간을 자국의 영역으로 삼았다. 그러나 요동의 확보는 중국세력과 맞닿아 있는 위치로 언제든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었다.

따라서 고구려는 그 지역에 축성하고 지방관을 파견하여 지배를 공고히 하고자 하였다. 5세기 고구려는 수사(守事)라는 관직을 파견하여 지방통치를 실시하였으며 이후 체계적인 지방통치체제를 실시하였다.

3장에서는 요동지역의 지방통치 구조와 축성 양상을 파악하였다. 5세기 고구려는 각 지역에 수사라는 지방관을 파견하여 영토를 지배하였다. 「忠州高句麗碑」에는 고모루성수사가 파견되었음을 전하며 고구려 지방통치의 단위는 성이었음을 알 수 있다.

영토가 팽창함에 따라 고구려는 지방통치체제를 정비하여 욕살-처려근지-가라달-루초 4단계의 지방관이 나타난다. 이들은 각각 대성-성-소성에 파견되어 해당 지역을 통치하였다. 그러나 장사에 비견된 가라달은 막부의 속료명으로 지방관으로 보기 어려우며 욕살과 처려근지의 직할지를 관장하는 현령급의 지방관으로 파악하여 고구려의 지방통치체제는 욕살-처려근지-루초의 3단계로 파악하는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지방관은 각 성의 크기와 중요성에 따라 각 성에 파견되었으며 가장 큰 대성을 관장했던 욕살은 내평과 외평에 각각 5부 욕살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요동 내륙의 초하·애하·벽류하·대양하 등 주요 하천은 발해만과 황해로 흘러나가며 특히 압록강 하구는 평양과 요동 남단의 연안을 이어주는 중요한 요충지였다. 고구려는 이러한 하천에 3km 이상의 산성을 축조하고 지방관을 파견하여 해당 지역의 방어 및 교통을 통제하였을 것이다.

초하·애하·압록강 유역에는 오골성과 박작성이 축조되었으며 오골성에는 『三國史記』를 통해 욕살이 파견되었음을 전한다. 대청하와 요하 유역은 발해만을 끼고 요동남부를 다닐 수 있는 교통로에 건안성이, 요동내륙 교통의 중심지인 대양하 유역에는 낭랑성산성에 각각 욕살이 파견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요동 내륙의 가장 큰 하천인 벽류하에는 성산산성과 후성산산성, 위패산성이 요동남단으로 들어오는 적을 방어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으며 요동남단과 황해를 연결하는 중요한 거점으로 기능하였다. 이러한 중요성을 가진 성에는 처려근지가 파견되었을 것이다.

4장에서는 주요 하천 근처에 축조된 산성을 바탕으로 형성된 수상교통로의 활용과 요동확보의 이점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중점은 요동의 주요 하천이 압록강 하구와 황해 및 발해만 연안의 해상교통로와 연결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평양과 요동 그리고 중국남조 국가와 연결되는 해

상교통로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러한 해상교통로를 통해 고구려는 북위를 거치지 않고 중국남조 국가와 원활한 외교를 이어 나갈 수 있었다.

또한, 요동확보의 이점은 교통로의 확보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요동은 철·소금이 생산되는 생산지였으며 중국남조 국가에서 말을 요구할 만큼 요동은 말을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이었다. 이러한 자원을 확보함으로써 고구려의 군사력과 경제 역시 성장하였다. 특히 수상교통로는 인구와 자원의 이동을 편리하게 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요동의 확보는 단순한 영토 팽창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군사·경제·외교가 집약되는 전략적 중심지로 기능하였으며 수상교통로는 이러한 기능을 가능하게 한 기반이라 할 수 있다.

HANSUNG UNIVERSITY

참 고 문 헌

1. 사료

「廣開土王碑」

「忠州 高句麗碑」

『三國史記』

『三國志』

『管子』

『通典』

『魏書』

『隋書』

『舊唐書』

『新唐書』

『資治通鑑』

『北史』

『翰苑』

『梁書』

『漢書』

『宋書』

2. 단행본

김현숙, 『고구려의 영역지배방식 연구』, 모시는사람들, 2005.

노태돈,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1999.

박시형, 『광개토왕릉비』, 사회과학원 출판사, 1996.

孙進己·王绵厚, 『东北历史地理2』, 黑龙江人民出版社, 1989.

신영식·최근영 외, 『고구려 산성과 해양방어체제 연구』, 백산자료원, 2000.

신정훈, 『고구려 광개토왕의 정치와 외교』, 혜안, 2018.

양시은, 『고구려 성 연구』, 진인진, 2016.

여호규, 『고구려 성Ⅱ』, 국방군사연구소, 1999.

HANSUNG UNIVERSITY

여호규·강현숙 외,『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과 유물』, 동북아역사재단, 2020.
王綿厚,『高句麗古城研究』, 文物出版社, 2002.
왕천유 저, 이상천 역,『중국고대관제』, 학고방, 2006.
임기환,『고구려 정치사연구』, 한나래, 2004.
정원철,『고구려성 연구, 동북아역사제단』, 2017.

3. 학술논문

공석구,「廣開土王의 遼西지방 進出에 대한 고찰」,『韓國古代史研究』 67, 2012.
권성하,「5~7세기 요하 유역 고구려의 욕살급 성과 관방체계」,『한국고고학회 학술대회』2026-2, 2026.
금경숙,「4~5세기 고구려의 지방통치에 관한 시론적 고찰」,『한국사학보』1, 1996.
김미경,「高句麗의 樂浪·帶方地域 進出과 그 支配形態」,『學林』17, 1996.
김영하,「高句麗의 巡狩制」,『歷史學報』106, 1985.
金貞培,「中原高句麗碑의 몇 가지 問題點」,『史學志』13, 1979.
김주형,「고구려 후기 요동지역 고구려성의 위계와 방어체계」, 고려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22.
金賢淑,「高句麗 中·後期 中央集權的 地方統治體制의 發展過程」,『韓國古代史研究』11, 1997.
盧重國,「高句麗律令에 關한 一試論」,『東方學志』21, 1979.
盧泰敦,「5~7세기 고구려의 지방제도」,『韓國古代史論叢』8, 1996.
_____,「광개토왕대의 정복활동과 고구려 세력권의 구성」,『韓國古代史研究』67, 2012.
_____,「渤海建國의 背景」,『大丘史學』19, 1982.
李仁哲,「고구려식 지명과 요동 주민의 계통 문제」,『白山學報』81, 2008.
武田幸男,「牟頭婁一族の高句麗王權」,『朝鮮學報』99, 1981.
_____,「朝鮮三国の国家形成」,『朝鮮史研究會論文集』17, 1980.
백다해,「4~6세기 高句麗 국제관계의 전개와 遼東」,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23.
서길수, 「벽류하(碧流河) 유역의 고구려 산성과 관방체계」, 『고구려발해연구』 11, 2001.
서영수, 「廣開土大王陵碑文의 征服記事 再檢討」, 『歷史學報』 119, 1988.
篠原啓方, 「高句麗的 國際秩序認識의 成立과 展開 : 4-5世紀를 中心으로」, 고려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6.
孫德連, 徐吉洙 옮김, 「비사성(卑沙城)」, 『고구려발해연구』 9, 2000.
신정훈, 「高句麗 廣開土王代의 稗麗 征討와 後燕과의 冊封이 가진 의미」, 『중앙사론』 37, 2013.
양시은, 「고구려 성의 기원에 대한 일고찰」, 『고구려발해연구』 47, 2013.
여호규, 「3세기 후반~4세기 전반 고구려의 교통로와 지방통치조직 -南道와 北道를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91, 1995.
_____, 「「광개토왕릉비」에 나타난 고구려의 대중인식(對中認識)과 대외정책」, 『역사와 현실』 55, 2005.
이경미, 「태자하-요동반도 일대 고구려 성의 분포양상과 지방통치」, 『역사문화연구』 61, 2017.
이상훈, 「삼국통일기 고구려 마읍산의 위치와 군사적 위상」, 『군사』 104, 2017.
이성제, 「4世紀 末 高句麗와 後燕의 關係 -396년 後燕의 廣開土王 冊封 問題를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68, 2012.
임기환, 「高句麗 執權體制 成立過程의 硏究」, 경희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5.
_____, 「고구려의 요동진출과 영역」, 『고구려발해연구』 45, 2013.
임기환, 「요동반도 고구려성 현황과 지방지배의 구성」, 『한국고대사연구』 77, 2015.
임진수, 「고구려의 압록강 하류 진출과 방어체계 운용」, 『백산학보』 129, 2020.
任昌淳, 「中原高句麗碑 小考」, 『史學志』 13, 1979.
장창은, 「중원고구려비의 연구 동향과 주요쟁점」, 『역사학보』 189, 2006.

田中俊明, 徐吉洙역, 「高句麗의 北方進出과 廣開土王碑文」, 『고구려발해연구』, 1996.
井上直樹, 「廣開土王의 對外關係와 永樂 5年의 對稗麗戰」, 『韓國古代史研究』 67, 2012.
주보돈, 「삼국시대 지방통치체제의 정착과정」, 『강좌 한국고대사』 2, 2003.
최희수, 「5~6세기 高句麗 地方統治의 운영」, 『역사논총』 10, 2012.
_____, 「고구려 후기 지방통치의 구조와 의미」, 『고구려발해연구』 32, 2008.

HANSUNG UNIVERSITY

ABSTRACT

Utilization and Growth of Water Transportation Roads by Securing Liaodong in Goguryeo

Choi, Sang-Geun

Major in Korean History

Dept. of History

Th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local governance system and acid distribution patterns established after Goguryeo secured the Liaodong area, and to understand the impact of the use of water transportation routes connecting the rivers and seas of Liaodong on Goguryeo's growth and foreign policy.

Existing studies have focused on the process of entering Liaodong, the function of the mountain fortress, and the use of land transportation routes, but studies on water transportation routes linking the rivers and seas of Liaodong have been somewhat insufficient. In particular, there are some inadequate areas regarding the use of rivers in Liaodong.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the transportation system used after securing Liaodong by linking Goguryeo's entry into Liaodong, the domination of the Liaodong area, and the establishment of Sanseong and

transportation routes.

First, the process of Goguryeo's entry into Liaodong and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securing Liaodong during the King Gwanggaeto era were reviewed. After that, Goguryeo ruled the area by constructing a fortress and dispatching local officials to defend against conflicts with Chinese forces. The fortress was a building built on the main road of the transportation route and served as a transportation hub. In particular, it was confirmed that the main fortresses of Liaodong were built in river basins and key points of coastal transportation, and it was revealed that these fortresses functioned not only for military purposes but also as a central base for local governance and water transportation.

Through this, it was revealed that major rivers and estuaries of the Yalu River, such as Choha, Aeha, Daeyangha, and Byeokryuha, were connected to sea transportation routes along the Yellow Sea and Balhae Bay coast, and used water transportation routes connecting Pyongyang and Liaodong China.

In particular, the movement of the population was used as a diplomatic channel with Song(宋), the southern Chinese dynasty. At that time, going to Song through land was a way to go through the northern Wei, and there were difficulties in movement due 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orthern Wei and Song. While securing Liaodong, it was possible to efficiently utilize diplomatic movement based on water transportation routes using the southern Liaodong. This movement enabled a diplomatic war with its own interests in competition with the Chinese dynasty.

In summary, Goguryeo utilized Liaodong as a space connecting military, economy, and transportation rather than just a border area with China, and was able to efficiently utilize the movement of materials, populations, and troops based on water transportation routes. In the end,

it was confirmed that securing Liaodong and using water transportation routes served as an important factor in Goguryeo's growth into a strong country in Northeast Asia after King Gwanggaeto by stabilizing Goguryeo's local governance system and laying the foundation for external activities.

HANSUNG UNIVERSITY

【Key-words】Goguryeo(高句麗), Liaodong(遼東), Provincial Rule(地方統治), Mountain Fortress(山城), Transportation Route(交通路)